

이원택 논란 격화...경선 공정성 직격탄

**범도민대책위 “선거법 위반 신속 수사” 촉구
 식사비 대납 의혹 “구태 정치 표본” 비판
 “정청래 동반 사퇴해야” 성토**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후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여론이 연일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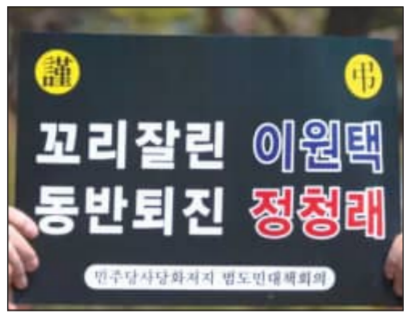
민주당사당화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4일 전북도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강력 규탄한 뒤 이원택 후보의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한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요구했다.

민주당사당화저지 범도민대책위는 “이원택 도지사 후보의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한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전제한 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침묵으로만 일관하지 말고 이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성토했다.

또 “지난해 11월 이 후보의 정읍 식사비 대납 사건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로, 측근인 도의원이 법카로 주류, 식사비를 결제했다는 등의 의혹은 전형적인 구태 정치의 표본이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이원택 후보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고 재감찰을 하지 않는 정청래 당대표는 이 후보와 함께 동반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정읍 모 음식점에서 발생한 식사 비용 일부를 이 의원



범도민대책위는 지난 24일 전북경찰청에서 정청래 대표 퇴진을 촉구하는 문구의 포스터를 들고 이원택 후보 선거법 위반 의혹 신속 수사를 요구했다.

이 아닌 제3자가 결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했다. 이후 정청래 대표는 윤리 감찰을 즉각 지시했고 민주당은 본경선 전에 곧바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도지사 후보로 이 의원이 최종 결정됐고 경선 상대인 안호영 의원은 재감찰 등을 요구하는 단식을 이어가다 녹색병원으로 긴급 이송되는 등 지역사회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대책위는 “정 대표는 아무런 해법도 내놓지 않은 채 단식하는 의원을 찾아가지도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경찰은 정치적 고려나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즉각 수사를 마무리하라”고 촉구했다.

/장정철 기자



안호영 의원

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공정성’ 문제와 관련 “당원으로서 당의 결정은 존중하고, 민주당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 경선 과정이 과연 공정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청래 대표는 선상 최고위원회에서 ‘모든 선거의 핵심 전략은 국민 눈높이와 승리의 관점’이라고 했지만, 이번 과정은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았습니까, 전북 도민의 눈높이에 맞았습니까”라고 정 대표를 직격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은 더 중요하다”며 “과정이 무너지면 승리도 명분을 잃는다. 공정이 무너지면 신뢰도 무너진다”고 주장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과 잘못된 과정을 묻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면서 단식 중단 이후

에도 문제 제기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민주당 윤리감찰 진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은 바 없다”며 “그러나 병원에 있으면서 조사받은 분들로부터 들은 내용을 종합해보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당이 이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가장 강도 높게 감찰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중요한 것은 감찰의 형식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 의혹을 덮는 감찰로는 당원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문제의 최종 책임은 선거를 지휘하는 당대표에게 있다”며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할 책임,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바로잡을 책임, 당원과 국민 앞에 설명할 책임이 당대표에게 있다”고 정 대표에게 날을 세웠다.

안 의원은 “저는 당과 싸우려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을 다시 바로 세우자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서라도 민주당은 더 공정해야 한다. 더 낮아져야 한다. 더 정직해야 한다”고 경선의 불공정 문제를 거듭 지적했다.

한편 안 의원은 지난 11일 경선 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단식에 들어갔다가 건강 악화로 22일 병원에 이송, 현재 입원 치료중에 있다.

이어서 “최근 현대차의 대규모 투자와 같은 앵커기업들의 전북 행보가 본격화

되면서 “저는 민주당 윤리감찰 진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은 바 없다”며 “그러나 병원에 있으면서 조사받은 분들로부터 들은 내용을 종합해보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당이 이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최근 현대차의 대규모 투자와 같은 앵커기업들의 전북 행보가 본격화

전북교육연대 “이남호 사과하라” 인권관·도덕성 논란 “자격 없어”

**이남호 예비후보 음주운전 전력·성과 도용 의혹 제기
 차별금지법 반대 입장에 “교육 가치 훼손” 규탄
 공개 사과 요구에 이 후보 “저열한 정치 공세” 반박**

이남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후보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 도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전북지역 12개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북교육연대는 27일 성명을 내고 이 예비후보의 도덕적 흠결과 인권관을 규탄하며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 예비후보가 차별금지법 반대 입장을 바탕으로 특정 종교단체의 지지를 수용한 것은 다양성을 가르쳐야 할 보편교육의 가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단체는 “학교는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공간이어야 한다”며 “최소한의 인권 기준인 차별금지법을 부정하는 인사가 교육행정의 책임자가 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후보자의 도덕적 흠결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단체는 “이 예비후보는 전북연구위원 재직 시절 소속 연구원의 성과를 가로챘다는 의혹과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다”며 “도덕성과 책임성 기준에 미달하는 후보는 도민 앞에 사죄하고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 관계자는 “차별을 옹호하고 도덕적 결함이 있는 후보가 전북 교육의 책임자가 되겠다고 나서는 것은 교육감 자격을 의심케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남호 예비후보 선대위는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이번 비판은 특정 후보의 허물을 덮으려는 저열한 정치 공세이자 대리전”이라고 반박했다.

선대위는 “음주운전은 윤창호법 시행 이전의 오래전 일로, 이번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 제출한 ‘공직후보자용 범죄경력 회보서(경찰서)상에도 나타나지 않은 사안이며, 연구성과 도용 주장 역시 정당한 공적 소동을 왜곡한 것”이라며 “비판의 배후에 있는 경쟁 후보의 도덕성부터 점검하라”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김중훈 경제부지사는 27일 세종정부청사서 기후부·산업부·교육부 등 주요 부처를 방문해 전북 핵심 신규사업들의 정부안 반영 요청 활동을 전개했다. <사진=전북도>

전북도, 중앙부처 공략...핵심사업 예산 반영 사활

**김중훈 부지사 세종정부청사 방문
 기후·산업·교육부 방문 협의
 해상풍력·AI-RE100 등 미래사업 건의
 현대차 투자 연계 인재양성 강조**

전북도는 27일 김중훈 경제부지사가 세종정부청사를 방문해 기후부·산업부·교육부 등 주요 부처를 대상으로 2027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부처의 예산 편성이 구체화되는 시기에 맞춰 전북의 핵심 신규

사업들을 정부안에 반영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김 부지사는 먼저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방문해 탄소중립 실현과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할 핵심 사업들을 건의했다. 심진수 재생에너지정책관에게는 해상풍력 O&M 기술 고도화 및 지역 정주형 인재양성 플랫폼 구축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고을 자원순환국장에게는 자립형 에너지 체계 구축과 환경 기초시설 확충을 위해 ▲전주권 광역소각시설 신규 건립 ▲김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고창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시

설 설치 등 3개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전북의 산업 구조를 미래형으로 전환하고 신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들을 집중 건의했다. 박동일 산업정책실장과의 면담에서는 상용차 산업 고도화를 위한 ▲한국형 필드데이터 활용 상용차 전동화 지원 기반 구축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상용차 모빌리티 전동화)을 건의했다. 친환경 에너지 거점 조성을 위한 ▲새만금 RE100 선도 산업단지 조성 지원도

이어서 최연우 인공지능정책관 면담

에서는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AI 기반 중재의료기기 자율협업 제조 플랫폼 구축과 ▲농업 AI 로봇 랩 팩토리 구축 사업에 대한 부처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교육부 방문에서는 이혜숙 고등평생정책실장을 만나 현대차 새만금 투자 지원을 위한 선제적 인재양성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현대차 투자 본격화에 대비해 안정적인 인력 공급 기반 마련이 필수 과제임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김중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최근 현대차의 대규모 투자와 같은 앵커기업들의 전북 행보가 본격화

되는 것은 지역 경제의 지형을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대규모 민간 투자가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전북

의 주요 전략 산업들이 반드시 국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Jeonbuk Times

YOUR WINDOW TO THE WORLD, OUR FOCUS ON JEONBUK

<https://www.jeonbuktimes.co.kr> 광고문의 282-9601 기사제보 282-9603 구독신청 282-9600

고창·부안 농촌용수개발 신규 선정...국비 706억 확보

고창 산수·부안 계화지구 선정 저수지·관로 구축 용수체계 개선 가뭄 대응·노후시설 정비 기반 물 부족 해소·영농여건 개선 기대

전북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6년 농촌용수개발사업 가운데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 기본조사 지구로 도내 2개 지구가 선정돼 총 706억 원

규모 사업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고창 산수지구(225억 원)와 부안 계화지구(481억 원)가 전국 13개 기본조사 대상 지구에 포함됐으며, 물 부족 지역 농업용수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은 상습 물 부족 지역을 대상으로 저수지 확충, 양수장 설치, 송수관로 구축 등을 통해 농업용수 공급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대응과 노후 수

리시설 개선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추진된다. 특히 도는 물 부족 실태와 사업 필요성을 반영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이번 기본조사 지구 선정에 이끌어냈으며, 향후 본사업 추진과 국비 확보 여건도 마련했다. 이번 기본조사 지구 선정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이 가능해졌으며, 본사업 추진 시 농업용수 확보와 재해 대응 기능 강화 기반도 갖추게 될

다. 이를 통해 농업 생산기반 확충과 안정적 영농 여건 조성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사업 선정은 물 부족 지역의 안정적 용수 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농업 기반과 농촌 정주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

보양식 판매업소 등 60여 곳 점검 거짓 표시·미표시 등 대상 수입산 국내산 둔갑 집중 단속

전북도가 가정의 달을 앞두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도는 27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 간 보양식 판매업소와 식자재 납품업체 등 6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정의 달을 맞아 농·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를 겨냥해 불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단속은 현장 점검과 함께 원산지 표시제 교육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산지 거짓 표

시 및 미표시, 수입 농·수산물의 국내산 둔갑 판매, 표시 방법 위반, 거래내역 비치·보관 여부 등이다. 특히 국내산 젓소·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도 집중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 원산지 표시제에 따르면 음식점은 쌀·콩·배추김치 등 농산물 3종과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축산물 6종, 납치·고등어·갈치 등 수산물 20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위반 시 처벌도 엄격하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원산지 표시 위반을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보고, 적발 시 철저한 조사와 함께 강력한



향정 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오택필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원산지 표시 위반은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연임 확정

백혜련·서영교·박정 불출마 사실상 재신임...가부투표 진행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로 사실상 확정, 연임에 성공했다. 후보 등록 마감일인 27일 원내대표 출마가 유력했던 백혜련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 한 전 원내대표는 지난 1월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사직에 따라 실시한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뒤, 최근 원내대표직을 사직하고 차기 원내대표에 출마했다. 백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불출마한다"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당의 단합을 통한 지방선거의 승리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이 길에서 제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6일 원내대표 출마가 거론되었던 서영교의원이 자신



한병도 원내대표

원장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의 역할과 임무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후보 등록을 포기했다. 또 박정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고민 끝에 이번 원내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지방선거)민주당의 승리,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지금은 백의 중군하겠다"고 원내대표 출마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원내대표 후보 등록을 한 의원에 대해서는 당은 가부투표로 최종 확정하게 된다. 민주당은 이날 제3기 원내대표 후보자 등록을 받았으며, 다음 달 4-5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6일 재직 의원 투표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었다. /서울=김영목기자

했다"면서도 "이번에는 국정조사위

전북도, 고유가 지원금 첫날 164억 지급

지급 '순항'...2만7천여건 접수 현장 보조인력 투입 혼선 최소화

전북도는 고유가 어려움 겪는 도민의 생활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첫날부터 차질 없는 집행 체계를 가동했다고 2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오후 2시 기준 온라인 6,244건, 오프라인 21,600건 등 총 27,844건에 대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을 접수해 164억 원에 대한 지급을 완료했다. 종류별로는 지역사랑상품권 1,353건, 신용체크카드 5,275건, 선불카드 21,216건에 해당한다. 신청 초기 혼잡이 우려됐으나 전용 어플로 신청하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라인 또는 은행 창구에서 진행되는 신용체크카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선불카드 등 신청 방식이 구분되면서 혼선은 없었다.

앞서 도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국제 유가 상승으로 가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도민들이 지원금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해 사전 준비, 현장 대응, 민원 안내 체계를 점검해 왔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기존 행정인력 외 현장 보조 대응인력 581명을 투입했다. 온라인(SNS·카카오톡 채널)과 오프라인(LED 전광판) 홍보를 병행하며, 스미싱 피해 예방 안내도 함께 진행했다. 특히 도·시군 자체 콜센터를 운영해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 이의신청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다. 고령자와 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지원도 병행해 누구나 소외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도, 아이돌봄 서비스 보조금·운영 실태 전수 점검

도내 15개 기관 운영·회계 점검 보조금 집행·인사 등 전반 확인 서비스 기준·대기 가구 관리 점검

전북도는 오는 6월 2일까지 도내 14개 시군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과 광역지원센터 등 총 15개소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와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아이돌봄 지원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추진되

며, 사업 운영의 내실을 강화하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도는 지난해 1,200여 명의 아이돌봄비를 통해 약 5,000가구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올해는 이러한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 점검을 강화해 서비스 질을 한층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주요점검은 도와 시군, 광역지원센터가 협력해 직접 기관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서

비스 운영의 적정성 ▲아이돌봄비 채용 및 인사관리 ▲보조금 집행 등 회계 운영 전반이다. 특히 서비스 우선 제공 기준 적용 여부, 대기 가구 관리, 종사자 근로계약 체결 및 보험 가입 여부 등 이용자 만족도와 직결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도는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를 통해 즉시 개선을 유도하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사업의 신뢰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장정철 기자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으로 이어가고, '아이 키우기 좋은 전북' 조성을 위한 돌봄 환경 구축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대숙 전북자치도 여성가족과장은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대표적인 공공 돌봄 서비스"라며 "철저한 현장 점검과 관리로 서비스 사각지대를 줄이고, 도민이 체감하는 돌봄 품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 어촌정착 지원 연령 60세로 확대

청년→신중년 확대 인력난 대응 3년 이하 신규 어업인 신청 가능

전북도는 '2026년 전북형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의 지원 연령을 기존 만 45

세 미만에서 만 60세 미만으로 확대해 신(新)중년층 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확대는 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신규 어업인의 정착을 돕

기 위해 추진된다. 기존 해양수산부 청년 어촌정착 지원 사업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을 대상으로 운영돼 40대 이상 신규 어업인은 지원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도는 지난해 만 40세 이상 만 45세 미만을 대상으로 전북형 사업을 도입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만 60세

미만까지 확대 시행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월 80만 원의 지원금을 최대 2년간 받을 수 있으며, 어가 가계자금과 수산업 경영비로 활용할 수 있어 창업 초기 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어업·양식업 등 3년 이하 수산업 독립경영인(예정자 포함)으로,

희망하는 新중년층의 어촌 유입을 촉진하고, 어촌의 지속가능한 인력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채중석 도 수산정책과장은 "이번 지원 연령 확대는 어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신규 어업인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전 단계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품 사용해 주세요

커피전문점,
음식점,
패스트푸드점 등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텀블러

스테인리스, 대나무 등의 재질
빨대·젓는 막대

백화점,
대형마트 등

우산비닐

우산 빗물 제거기

편의점,
슈퍼마켓 등

비닐봉투

장바구니

전주시 '전통시장·상점가' 통계조사 실시

5월 11일부터 29일까지
시장경기·경영 실태 파악

전주지역 전통시장 활성화 위한 전통 시장 및 상점가 시장경기 파악에 따른 조사가 실시될 전망이다.
조사는 내달 11일부터 29일까지 전주 지역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을 대상으로 이어진다.

조사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로부터 작성을 승인받은 통계(승인번호: 제711006호)로, 전통시장의 판매·고용 동향 및 경기 흐름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후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된다.
조사는 시가 채용한 전문 조사원 14명이 대상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1:1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상은 전주지역 전통시장 6곳과 상점

가 7곳이다.
이번 조사의 특이사항으로는 최근 공식 출범한 '가구거리상점가'가 조사 범위에 신규 포함되어 더욱 폭넓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게 됐다.
조사 내용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연간 실적 기준으로 △사업체명·산업 분류 등 일반사항 △대표 품목·영업실적·고객 수·종사자 수·결제유형 비율·운영 애로사항 등 총 21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시는 수집된 데이터를 정제 및 분석해 오는 8월 말 최종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한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통계 작성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고 응답 사업체의 개인정보 및 경영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보호 받는다.
/정소민 기자

송천도서관 '문화예술 동아리'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문화예술독서활동 동아리 공모
선정팀 200~300만원 지원

전주시 송천도서관 '2026 도서관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지원' 공모사업이 선정됐다.

동아리 공모사업은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6일 18시까지 관련 제출서류 접수 등을 통해 이뤄졌다.
공모는 공공도서관을 거점으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을 지원해 지역민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2026 도서관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지원' 공모사업 동아리 분야는 문화예술(음악, 연극, 미술, AI 등 기타) 및 독서활동 등이다.
여기에 동아리 공모에 선정된 팀에게는 △문화예술 300만원 △독서활동 200만원 등이 지원된다.
관련해 선정 독서동아리는 4월 30일부터 11월 26일까지 전부의 대표 문학 자

산인 대화소설 '흔불'을 주제로 독서토론과 작품 배경지 답사 △문학기행 △일반 시민 대상 강연 등 총 9회에 걸쳐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2026 도서관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지원' 공모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재)한국도서관문화재단이 주관했다.
/김영태 기자

열람도 가능하다.
시는 제출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 당초 조사·평가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까지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도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2026년 개별주택가격' 공시 이의신청 접수

전주시가 2026년 1월 1일 기준 총 36,651호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해 산정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된다.
올해 전주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 상승률(1.13%) 영향으로 전년 대비 평균 1.68% 소폭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완산구가 1.39%, 덕진구가 2.02%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수준별로는 3억원 이하가 전체의 83.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3억원 초과 주택은 대부분 다가구주택이다.

최고가는 풍남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으로 19억6200만원으로 책정됐다.
해당 주택은 한옥마을 중심지역에 위치해 표준주택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은 전주시 세정과와 주택소재지 중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한 온라인

열람도 가능하다.
시는 제출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 당초 조사·평가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까지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도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전북도 청소년 자립 지원 '맞손'

지역청년 발굴취업 '원스톱 지원'

전주시는 지역 내 위기 청년 자립 지원 협력체계 구축에 전북도청년미래센터와 손을 잡았다.
이에 덕진지역자활센터와 청년미래센터는 27일 전북도청년미래센터에서 '위기청년 지원 강화'를 위한 통합 복지 거버넌스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기관은 추진 목적으로 위기청년 조기 발굴과 지원 위한 원스톱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상호 협력적 연계를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안정적 지원 체계 구축 및 사업 추진 도모를 담고있다.
협약은 경제적·정서적 어려움에 놓인 청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양 기관이 보유한 자원과 서비스를 연계해 실질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기관은 앞으로 △위기 청년 발굴 및 사례 공유 △맞춤형 자립 지원 서비스 제공 △정서·심리 회복 프로그램 연계 △취·창업 및 자활 지원 협력 △지역사회 자원 연계 확대 등에 협력의 폭을 넓힌다.
특히 청년 개별 상황에 맞춘 통합사례 관리 체계를 구축해 단계별 자립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청년미래센터의 발굴·상담 기능과 자활센터의 일자리·자립 지원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위기 청년에 대한 조기 개입부터 취업까지 이어지는 통합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2026년 이동노동자 직무교육'

안전일터 조성·직무역량 강화

전주지역 이동노동자들의 안전일터 조성·직무역량 강화 '2026년 이동노동자 직무교육'이 실시됐다.
교육은 27일 전북도 노동권익센터에서 대리기사와 퀵·배달기사 등 이동노동자 3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현장 등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사고 발생 시 대응 방법 △중합소독세 신고 등 실생활에 필요한 세균 지식 제공 등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전주세무서와 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강사가 각각 참여해 실무 중심 교육을 펼쳤다.
주요 내용은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예방 위한 '사고 예방 안전교육 및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중합소독세 신고 및 근로장려금 신청 등 '세금 신고 전략' 등이다.
관련해 시는 교육 이수 전원에 대해 야간 작업 시 안전을 지켜줄 '여름철 야광 쿨조끼'(한문철 교통안전 기부 물품)를 지급했다.
/정소민 기자

아울러 이동노동자 지원사업과 연계해 산재보험료 본인부담금에 대한 전액 또는 일부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시는 교육을 통해 이동노동자 안전의식 향상과 세금 신고에 대한 이해를 돕는 등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에 기여했다.
/정소민 기자

어진박물관에서 '꽃의 계절'을 즐겨요!

청명·곡우·전통놀이 체험 운영

2026년 4월 '문화가 있는 날' 어진박물관에서 '꽃의 계절' 즐기세요!
전주시어진박물관은 오는 29일 4월 문화가 있는 날 '꽃의 계절'을 주제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체험프로그램은 청명(淸明)과 곡우(穀雨)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에 자생하는 꽃들로 구성된 압화스티커를 활용한 책갈피 만들기 등 전통놀이 체험을 할 수 있다.
여기에 압화책갈피 만들기 체험은 전주한옥마을 경기전 내 어진박물관 지하1층 열린마당에서 진행된다.
더불어 △투호 △제기차기 △떡지치기 등 전통놀이 체험 등도 마련됐다.
/정소민 기자

여기에 압화책갈피 만들기 체험은 전주한옥마을 경기전 내 어진박물관 지하1층 열린마당에서 진행된다.
더불어 △투호 △제기차기 △떡지치기 등 전통놀이 체험 등도 마련됐다.
/정소민 기자

전북경찰청 '외국인 범죄예방 종합대책' 추진

전북경찰청은 최근 등록외국인 수 증가와 함께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범죄에 대해 민생치안 안정을 위해 27일부터 '외국인 범죄예방 종합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외국인 범죄예방 대책은 지난 1일부터 13일까지 도내 14개 시군 244개 읍면동별 등록외국인과 범죄 발생 전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경찰은 도내 등록외국인 분포와 지역

주민 대비 외국인 비율 그리고 최근 1년간 외국인 범죄 발생 건수와 112 범죄 신고 건수 등에 대한 정밀분석을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주요 범죄예방 활동지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지역별 외국인 범죄예방 관리등급을 분류한다.
특히 등급 분류된 데이터는 경찰 내부 시스템에 입력해 매일 실시되는 경찰탄력 순찰 코스로 활용된다.
이를 통해 범죄 취약지역과 외국인 밀

집지역을 한눈에 파악하여 범죄예방과 신속 대응이라는 이중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또 분류된 등급에 따라 순찰 강화 기간과 주기를 차등화하는 등 순찰 정밀도를 높여 지역경찰·광역예방순찰대·기동대·자율방범대가 외국인 범죄예방에 대한 빈틈없는 가시적 순찰활동을 전개한다.
/정소민 기자

완산·덕진소방서 '전주국제영화제 소방안전대책 추진'

전주완산소방서 박덕규 서장·전주덕진소방서 권기현 서장은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선제적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소방안전대책은 국제행사의 특성을 고려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사전 예방부터 현장 대응까지 단계별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마련됐다.
행사 양소방서는 영화제 기간 중 약 83,000여명의 관람객, 일일 최대 수용 인원은 약 12,000명이 참여 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양 소방서는 다중운집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 선제적 예방과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정소민 기자

"당신의 소리축제를 꺼내주세요"

전주세계소리축제
나의 소리축제 공모전

2026 전주세계소리축제에서는 '나의 소리축제' 주제로 특별한 사진공모전을 개최한다.
특별사진공모전은 축제를 즐기며 △웃고 울었던 순간 △공원의 감동 및 현장 생생한 분위기 등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사진이라면 주제·형식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전주세계소리축제 최철 조직위원장은 2026년 25주년을 맞아 그동안 함께한 관람객들의 소중한 추억을 되살려 축제 발자취를 기록하기 위해 마련했다.
공모전은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소리축제 현장을 대상으로 한 촬영 등으로 오랜 기간 서랍 속에 간진 된 추억을 공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여기에 응모는 장롱 속 사진이나 휴대전화 및 디지털카메라에 담긴 소리축제 관련 사진 1장으로도 응

모가 가능하다.
공모기간은 내달 26일까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소리축제 공식 SNS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전주소리축제 관계자들은 "소리축제가 걸어온 25년 시간을 되돌아보며 축제 의미를 다시금 되짚어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경찰청 소상공인 범죄예방 추진

생업 환경 조성 현장 목소리 청취

전북경찰청(청장 이재영)이 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전북소상공인 연합회원 2630명을 대상으로 27일부터 내달 6일까지 10일간 범죄예방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조사는 최근 빈발하는 노쇼 사기와 같이 소상공인을 노리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의 현장 의견을 파악해 정책추진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설문은 소상공인이 경험했거나 불안감을 느끼는 범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범죄예방 활동과 관련 인프라 강화 필요성 등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찰은 이번 조사 결과를 활용해 소상공인 범죄예방과 통합지원 활동을 보완·강화할 계획이며,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의 치안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소민 기자



전북소방본부는 27일 화재조사 전문성 향상과 과학적인 원인 규명 체계화를 위해 화재증거물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사진=전북소방본부>

전북소방본부 화재증거물 정밀 감정 가동

화재조사 전문성 향상
과학적 원인 규명 체계화

전북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27일 화재조사 전문성 향상과 과학적인 원인 규명 체계화를 위해 화재증거물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이번 감정은 전북119안전체험관 내 화재조사분석실에서 진행된다. 전북119안전체험관 내 화재조사분석실은 이임실군에 소재하고 있다.
감정에는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증거물 감정 업무 경험자 소방경 김용운 감정지도관 및 화재조사관 등 10

명이 참여해 전문적인 기술 지도와 자문을 제공하며 감정의 정확도를 높였다.
주요 감정 대상은 도내 3개 소방서에서 수집한 전기화재 관련 단락흔(합선 흔적)으로, 금속 조직 분석 등 과학적 기법을 활용해 발화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는 데 집중했다.
전북소방본부는 이번 전기화재 감정을 시작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인 감정 활동을 실시해 화재조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전북 수출, 3년 만에 월 최고 실적 달성

2023년 4월 이후 최대 당월 수출 전년 동월 대비 17.2% 증가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2026년 3월 전북특별자치도 무역동향'에 따르면 2026년 3월 전북특별자치도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7.2% 증가한 6억8501만 달러, 수입은 38.5% 증가한 5억9985만 달러로 집계됐다.

49.2% 증가한 866억2688만 달러, 수입은 13.2% 증가한 603억8814만 달러로 집계됐다. 3월 전북의 무역수지는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늘어 흑자폭이 제한됐으나, 2023년 4월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월수출액을 달성했다. 1/4분기 누적 집계 기준 수출액 또한 총 17억 9695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분기 대비 12.8%, 전분기 대비 19.1%라는 견조한 성장 흐름을 이어갔다. 3월 전북의 5대 수출 품목은 △농약및 의약품(\$8,822만, -4.2%) △정밀화학원

료(\$5,212만, 29.9%) △동제품(\$4,315만, 58.5%) △농기계(\$4,026만, 16.5%) △자동차(\$3,730만, -31.8%) 순으로 나타나며 이들 5대 품목이 전체 수출의 38.1%를 차지했다. 정밀화학원료, 동제품, 농기계, 합성수지 등 전북의 기존 주력품목의 성장세가 전체 수출 확대를 뒷받침한 반면, 자동차 수출은 우크라이나 및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상용차 수출 감소로 하락세를 보였다. 국가별로는 미국, 중국, 베트남, 일본 등 기존 주요 4대 수출국뿐 아니라 브라질, 이집트, 인도네시아 등 상위 7개국 모두

플러스 성장을 보인 가운데, 이집트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276.9%라는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며 2420만 달러 수출액을 기록했다. 이는 이집트가 대규모 원전 건설을 위해 추진 중인 엘다바 프로젝트와 관련한 핵심 부품 기자재 수출 증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해당 프로젝트는 2030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는 장기 국책 사업으로 향후 전북의 신용 유망시장으로서 이집트의 성장 가능성이 주목된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가주부모임, 쌀 소비촉진 홍보

농심천심운동 '앞장'

농가주부모임전북연합회 女心이 모여 쌀 소비촉진 홍보활동을 펼쳤다. 27일 전북농협(본부장 김성훈) 육성, 농가주부모임전북연합회(회장 김미자)는 2분기 이사회와 쌀 소비촉진 홍보활동을 전주시내 일대에 서 진행했다. 금차 이사회에서는 2026년 조직역량 강화 및 신규 사업발굴과 지역사회 공헌활동 확대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특히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활동,

농촌 일손 돕기,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 실질적인 농촌 활력 제고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더불어 소멸 위기 농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아울러 농가주부모임전북연합회원은 농심천심 운동 전과 위한 토론과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홍보 강화에 뜻을 함께 모았다. 한편 이사회 후 인근 하나로마트를 방문해 내점고객 대상으로 전북 쌀 소비촉진을 홍보하며 농심천심 운동에 앞장섰다. /김영태 기자

전기안전공사,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최우수'

중소기업·소상공인 동반성장 조성 노력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가 중소기업부 주관 '2025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최우수' 등급은 그동안 국내 중소기업

업 및 지역 소상공인들과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온 결과다. 공사는 이번 평가에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협력 중소기업 판로 지원 △공정거래 문화 확산 △상생경제제도 도입 실적 등 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자체 인력과 역량을 활용해서 개

발도상국에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전기설비 안전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사가 개발한 원격점검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관련 중소기업의 성장을 함께 이끌었던 사례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사는 또 지난해 에너지안전 분야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 지원에 앞장서며 8700만 달러에 이르는 계약

체결 성과를 거두는 데도 힘을 보탤다. 농어촌 발전을 위해서도 협력기금을 출연해 지역 농어업기업의 동남아 시장 진출에도 꾸준히 길을 열어오고 있다. 이같은 노력을 인정 받아 공사는 지난해, 중소기업 재생에너지산업 진흥 유공 대통령표창, 동반성장 유공 중소기업 업무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정소민 기자

전북테크노파크, 방산 창업 거점 도약

K-방산 스타트업육성 공동 참여기관 선정

전북테크노파크는 방위사업청 공모사업 '2026년 K-방산 스타트업 1단계 육성사업' 전라·충청권 공동 참여기관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전북테크노파크는 대전테크노파크, 이노폴리스벤처협회, 대전방산사업협동조합,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을지연구소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올해 12월까지 약 8개월간 총 15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K-방산 스타트업 육성사업'은 방산 경험이 없는 초기창업기업과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해 과제 기획, 방산 교육, 선행 연구개발, 멘토링 등 단계별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방위산업 진입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특히 민간의 우수 기술을 국방 분야로 확산하고 방산 생태계의 혁신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북테크노파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북·광주·전남 유망 방산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고, 기술개발 아이템 기획부터 시제품 제작과 검증까지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참여기업은 1단계 성과 평가를 거쳐 2단계(2027년, 기업당 최대 5억원), 3단계(2028년, 기업당 최대 21억원)로 이어지는 중장기 연구개발(R&D) 지원에도 도전할 수 있어 방산 분야 진입과 성장(스케일업)의 기회를 확보하게 된다. 또 전북테크노파크는 사업을 계기로 전북의 첨단소재 산업 기반과 대전의 드론산업과 연계한 초광역 협력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권역별 역할 분담을 통해 기업 발굴부터 성장 지원까지



체계적인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로봇·드론·소재 등 지역 특화 기술의 방산 전환을 촉진하고, 체계기업과의 연계 강화해 실질적인 산업 생태계 확대로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전북테크노파크와 국방기술진

국민연금공단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우수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재정경제부에서 주관한 2025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공단은 이번 조사에서 93.7점을 받아 전년 대비 1.1점 상승하며 다시 한번 역대 최고 점수를 경신했다. 이는 전체 공공기관 평균(89.2점)보다 4.5점, 공단이 속한 준정부기관 평균(91.4점)보다 2.3점 높은 수준이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18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품질과 이용만족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 수준을 확인하는 대표 지표이다. 세부 항목별로는 직원의 '친절성'을 평가하는 항목에서 96.7점으로 가장 높

은 점수를 받았다. 그밖에 정확성·효율성(96.3점), 업무처리의 신속성(96.2점) 등 다른 부문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아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이 우수함을 인정 받았다. 이는 공단이 그동안 고객 중심 서비스 혁신을 위해 직원 대상 고객서비스(CS) 컨설팅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고객 대상 서비스 품질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한 결과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이에 더해 국민이 더 쉽고 편리하게 연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반 상담 지원, 비대면 서비스 확대, 고객의 소리(VOC) 분석을 개발 등 고객서비스 혁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농어촌공, 도내 농촌용수개발사업 2지구 선정

농업용수 공급 기반 구축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고창, 부안 도내 2지구가 농촌용수개발사업 기본조사 대상지로 최종 확정(농림축산식품부)했다.

농촌용수개발사업은 기후 변화로 빈번히 발생하는 강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구 평균기온 상승에 따른 물 증

발량량 증가로 가뭄 발생이 심화되는 상황에 대비하고자 농촌용수원을 새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또 기존 수리시설 간의 연계와 재편을 통해 지역간 물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순한 수량 확보를 넘어 수질 개발, 저수지 확충, 용수로 정비 등 종합적인 물관리 체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번 대상지 확정으로 2026년에는 기본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경우, 지역 맞춤형 물 공급 인프라가 구축되며 기후변화 대응력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전국 13개 기본조사 대상지구 중 전북에서 선정된 산수지구(고창), 계화지구(부안) 2곳은 저수지와 양수장,

용수관로 등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고창 산수지구는 가뭄 때마다 물 걱정이 반복됐는데 사업이 추진되면 안정적 영농기반 확충이 기대되고, 부안 계화지구는 간척지 특성상 수자원 관리가 까다로운 지역으로, 사업 추진 후 농업용수 공급체계 개선이 기대된다. /정소민 기자

<갈색거저리 애벌레>

농진청 '고소애' 장내 유익균 증가 효과 임상시험 확인

특수의료용도식품제품 개발 활용 가치 ↑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서울대학교병원(박준성 교수 연구팀)과 함께 해당도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고소애'(갈색거저리 애벌레) 섭취 시 대장 미생물 군집이 개선됨을 확인했다.

항암 환자가 영양소를 잘 섭취하지 못하면 항암치료를 계속하기 어려워 암 치료 효과가 떨어진다. 이는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삶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어 양질의 환자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연구진은 환자식 신소재 발굴을 위해 항암치료 중인 해당도암 환자 34명에게 '고소애' 음료를 8주간 제공했다. 그 후 생체 분류 단계 수준에서 대장 미생물의 군집 구성 변화를 평가했다. 그 결과, '고소애' 음료 섭취군에서 장내 유익균 비율이 증가하고, 유해균 비율은 감소했다. 반면, '고소애'를 먹지 않은 환자군은 장내 유익균이 줄고 유해균이 늘었다. 농촌진흥청은 앞서 수행한 임상시험에서 수술 후 환자에게 '고소애' 분말을 섭취시킨 결과, '고소애'가 면역력과 영양지표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했다. 여기에 이번 연구 결과까지 더해져 '고소애'가 특수의료용도식품제품 개



발을 위한 소재로서 활용 가치가 높음을 확인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농관원 '보양식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원종현, 이하 '전북농관원')은 염소고기와 오리고기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을 27일부터 5월 8일까지 12일간 실시한다.

단속은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라 최근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염소고기와 오리고기를 대상으로 외국산은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염소고기 및 오리고기를 취급하는 전문음식점, 제조·가공업체, 전통시장,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등이다. /김영태 기자

특히, 국산과 외국산을 혼란해서 판매하거나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염소의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전북농관원은 단속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등 소비자 및 생산자단체 명예감시원과 함께 7개반 38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한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전북교육청, 13개 직속기관 평가 첫 도입

자체 정량평가 및 교육청 주관 정성평가 병행해 정책 연계 점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도내 14개 시·군 교육지원청과 13개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행정기관 평가 체계를 전

면 개편한다고 27일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그동안 사업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체계가 없었던 13개 직속기관에 대해 올해부터 정성 평가를 도입한다. 기관별 자체 정량평가와 도교육청 주관 정성평가를 병행해 직속기관 사업과 핵심 정책 간 연계성을 점검한다. 이를 위해 전북교육청은 전·현직 교수와 공무원 8명으로 평가위원단을 구성해

오는 30일까지 세부 지표 설계를 위한 자문을 진행한다. 기존에 실시하던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평가는 지역 규모와 교육 여건을 반영해 2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한다. 평가 항목은 인공지능(AI) 미래인재 양성, 공교육 강화, 책임교육·돌봄, 학교 공동체 회복 등 4개 영역 19개 지표다. 특히 올해부터는 교육지원청 대상 최

우수 및 우수기관 선정을 폐지한다. 평가 점수에 따른 기관 간 서열화를 지양하고, 해당 결과를 정책 수립과 사업 개선 자료로 활용하는 데 집중한다. 전북교육청 양성화 정책기획과장은 “현장 중심의 행정 운영을 지원하고 도출된 평가 결과를 차년도 정책 수립과 세부 사업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고창군, 관광 전문인력 양성 나선다

관광 관련 커리큘럼 제공

고창문화관광재단(상임이사 조창환)은 27일부터 지역 관광 활성화 및 수용태세 개선을 위해 ‘2026년 관광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창의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홍보 및 각종 행사 운영을 전담할 현장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재단은 사회적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모집 대상을 △청년 △경력보유여성 △결혼이주여성 및 외국인 근로자로 특화해 선발할 계

획이다.

최종 선발된 인원에게는 △고창관광자원 및 최신 여행 트렌드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 훈련 △관내·외 관광 선진지 답사 등 입체적인 커리큘럼이 제공된다.

재단은 이를 통해 단순 교육을 넘어 교육생들이 자립형 문화관광 전문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조창환 상임이사는 “이번 전문인력 양성을 마중물 삼아 고창군 관광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전북대-한화시스템, 첨단 방산기술 협력 시동

기술교류 세미나서 AI 등 5대 핵심 분야 논의

전북대학교가 한화시스템과 인공지능(AI) 및 무인체계 등 미래 방위산업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산학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전북대는 27일 교내에서 첨단방위산업학과 교수진과 한화시스템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첨단 방산기술 교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장원준 전북대 국방산업연구소 부소장과 홍윤석 한화시스템 해양연구소장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

석했다. 이들은 AI 기반 국방 시스템, 무인·자율체계,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 등 5대 핵심 분야의 기술 동향을 점검하고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한화시스템은 해양 무인체계 및 방위전자 분야의 연구개발 방향을 소개했다.

전북대는 올해 국내 최초로 신설한 학부 과정인 ‘첨단방위산업학과’의 교육·연구 모델을 공유하며 산학 프로젝트 및 채용 연계형 특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안을 제시했다.

전북대 국방산업연구소 이병권 수석연구원은 “대학의 이론과 기업의 기술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기술 실증과 인재 양



성이 선순환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향후 산학 프로젝트와 인턴십 등 실무 중심의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주대, 청년 대상 HACCP 팀장 과정 운영

식품산업 전문 교육 진행

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식품산업 분야 취업 준비하는 청년 25명을 대상으로 ‘식품산업 전문 인재 양성 교육’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식품 품질 및 안전관리 분야 취업 준비생을 위한 HACCP(해썹) 팀장 과정으로 운영됐다. 세부 교육 내용은 선형요건 관리, 위해요

소 분석, HACCP 7원칙 등으로 구성됐다.

전주대는 2025년 대학청년고용서비스 사업 성과평가 최고 등급을 획득하며 관련 사업에서 7년 연속 최고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전주대학교 오현성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은 “지역 산업 수요와 청년들의 진로를 반영해 식품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품질 및 안전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현대 홈구장에 ‘무신사 스탠다드’ 오픈

스카이박스에 브랜딩룸 마련

전북현대모터스FC가 홈구장인 전주월드컵경기장을 단순한 축구장을 넘어 팬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담은 복합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전북현대는 지난 26일 국내 대표 패션 브랜드 ‘무신사 스탠다드(MUSINSA STANDARD)’와 협업해 전주월드컵경기장 내 스카이박스를 브랜드 체험 중심의 ‘브랜딩 룸’으로 새롭게 리뉴얼 오픈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성된 브랜딩 룸은 경기 관람을 넘어 라이프스타일 콘텐츠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프리미엄 공간으로, 전북현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장 경험 혁신’의 일환이다.

스카이박스는 경기장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최적의 관람 환경과 함께 프라이빗한 공간성을 갖춘 좌석으로, 이번 협업을 통해 패션·뷰티 브랜드 체험 요소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관람 콘텐츠로 기존의 관람 환경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장정철 기자

무신사 스탠다드 룸은 블랙 앤 화이트와 메탈 소재를 활용한 감각적인 인테리어로 꾸며졌으며, 특히 공간 내에 ‘무신사 스탠다드 뷰티 체험존’을 설치했다.

이를 통해 경기장을 방문한 팬들은 90분간의 혈투를 즐기는 동시에 최신 뷰티 트렌드를 직접 경험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을 누리게 된다. 전북현대와 무신사 스탠다드의 협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3년 구단 유니폼 및 굿즈 래플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하며 신뢰를 쌓아온 양사는, 이번 오프라인 공간 조성을 통해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했다.

구단은 이번 협업을 통해 패션과 뷰티에 관심이 높은 젊은 층과 여성 팬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스타디움 환경을 제공하고, 무신사 스탠다드는 호남권 거점인 전주에서 팬들과의 접점을 넓히는 윈-윈(Win-win)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장정철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4색이음 팸투어 성료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이 지난 25일 국립공원공단서부지역본부, 건국대학교와 협력해 ‘조선왕조실록 보존의 공간 팸투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팸투어는 서부내륙권 관광진흥사업의 4색이음 관광상품 개발과 관련해 전북의 역사문화자원과 국립공원 자원을 연계한 권역형 관광콘텐츠의 가능성을 점검하고, 기관 간 협력 기반을 확대하고자 추진됐다.

행사에는 재단과 국립공원공단, 전북도 및 시군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전주사교를 시작으로 정읍 내장산 용굴, 무주 적상산사고를 잇는 코스를 따라 조선왕조실록 편찬과 보존의 역사, 전주사고본의 이안과 수호 과정, 적상산사고의 역사적 가치 등을 현장에서 살폈다.

조선시대사 전문가인 건국대학교 신병주 교수가 해설을 맡아 각 탐방지의 역사적 의미와 배경을 설명했다. 재단은 이번 팸투어 결과를 바탕으로 4색이음 테마 관광상품 가운데 역사문

화 테마와 연계한 관광콘텐츠를 보완하고, 향후 관광상품화와 홍보 연계 기반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경윤 대표이사는 “이번 팸투어는 전북의 역사문화자원과 국립공원 자원을 연계한 관광콘텐츠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라며,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4색이음 테마 관광상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지역 관광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부내륙권 관광진흥사업은 전북·충남·세종을 아우르는 광역 협력 관광 사업으로, 지역의 특화 콘텐츠를 발굴·홍보하고 연계 관광 상품을 개발해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4색이음’은 지역의 역사문화·향토 문화·문화예술·자연휴양 자원을 네 가지 테마로 구성한 광역 관광상품 브랜드이다.

자세한 사항은 재단 누리집 또는 관광마케팅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장정철 기자



전주 학마을추진계획단, 제조작업 실시

3번째 봉사활동 전개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동장 정혜운) 학마을추진계획단(단장 박영진)은 지난 24일 완산철보 야수터 넘어가는 길목의 묵수국, 불두화의 제조작업을 3번째 실시했다.

도시권 인근의 철쭉을 감상한 방문객들이 이곳으로 넘어오면서 제조작업을

하고 있는 학마을추진계획단 단원들에게 “무슨 꽃이나 만개하면 이쁘겠다”고 하며 많은 관심을 보였다.

조민연(85세)씨는 “동네 전지를 해야 할 나무를 찾아다니며 전지하고 풀이 우거진 곳에 제조작업 봉사를 하는데 건강이 허락하는 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선거 준비는 빠를수록 유리 합니다.
홍보물의 완성도가 후보의 첫 인상을 결정 합니다.

Design Plan



Digital photography



Editorial Design



Printing



6.3 지방선거 ONE-STOP선거 홍보 제작팀

유한회사 준테크 TEL-063-226-5888 E-Mail_jhchoi3075@daum.net

대홍정판사 TEL-063-254-0056~7 E-Mail_hi056@hanmail.net

아트애포토 TEL-063-251-0987 E-Mail_ap0987@daum.net

익산시, 내달 15일까지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실시

익산시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 위생업소 조성에 나섰다.

익산시는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와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27일부터 5월 15일까지 '2026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진행한다.

이번 평가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 161개소, 세탁업 139개소, 목욕장업 34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공무원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평가반이 현장에 방문해 업소를 직접 점검한다.

평가 항목은 △일반현황 △준수사항 △권장사항 등 3개 분야로, 22~25개 항목이 포함된다. 평가 결과 △90점 이상은 최우수(녹색 등급) △80점 이상 90점 미만은 우수(황색 등급) △80점 미만은 일반관리대상(백색 등급)으로 분류되며, 결과는 익산시 누리집에 게시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위생서비스는 시민의 쾌적한 생활과 직결된 만큼 철저하게 평가를 진행하겠다"며 "위생 수준 향상과 정확한 업소 관리로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늘푸른도서관

어린이 특화 문화행사 접수

군산시 늘푸른도서관은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와 가족이 책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어린이 특화 문화행사 '아이사랑한마당'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독서를 넘어 공연, 저자 강연, 예술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시민들에게 일상 속 힐링의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5월에는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9월에는 '나는 겁이 아니야'의 저자 나다을 작가 초청 강연이 진행되며, △12월에는 과학 원리를 마술로 풀어낸 '사이언스 매직쇼'가 열린다.

이어 △19일에는 '무지개 물고기'를 주제로 한 '아광 입체 인형극'이 관객을 만난다.

6월에는 체험 중심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9월 '가족 음악 책놀이' △16일 '씨클라스 석고 방향제 만들기' △19일 '테러링 화덕 피자 만들기'가 진행되며, 책과 연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가족 간 소통과 창의력 향상의 기회를 제공한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늘푸른도서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노미경 여행작가 등 각 분야 전문가와 팸투어 추진

정읍시가 지역 관광자원의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고 체류형 관광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각 분야 콘텐츠 전문가와 함께하는 초청 홍보 여행(팸투어)을 추진한다.

이번 행사에는 정읍시 홍보대사이자 관광발전위원회 위원인 노미경 여행작가를 비롯해 방송 드라마 작가와 제작자, 영화 평론가 등 다양한 콘텐츠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일정은 오는 5월 8일부터 10일까지 2박 3일 동안 진행된다. 방문 코스는 신성공소와 국가유산 미디어아트관, 김명관 고택,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내장산 일원 등 정읍의 주요 관광자원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시는 이번 홍보 여행을 통해 관광자원의 이야기화(스토리텔링)와 체류형 콘텐츠 전환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각 분야 콘텐츠 전문가가 참여해 이번 홍보 여행의 상징성과 완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문가 기반 콘텐츠 발굴을 통해 정읍 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고 체류형 관광도시로의 전환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정읍시, 향토문화유산 신규 지정

놀이·송연손 신도비 지정... 교동우물 등 3건 관리대상 포함

정읍시가 지역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일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를 열고 향토 문화유산 2건(놀이, 송연손 신도비)과 관리 대상 우물 3건(교동마을 우물, 이화담 우물, 내정마을 우물)을 신규 지정했다.

향토문화유산은 국가지정이나 시·도 지정 문화유산이 아닌 비지정 문화유산 가운데 역사적·학술적·예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대상을 시·군 단위로 지정해 보호하는 제도다. 이번에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은 교부면 '놀이'와 칠보면 '송연손 신도비'다.

'놀이'는 김제 벽골제, 익산 황동제와 함께 호남 최대 곡창지대를 일군 '국중삼호(國中三湖)' 중 하나로, 최근 조사를 통

해 삼국시대 이전 축조 가능성이 제기된 수리 시설이다. 현재 제방의 도로 전용과 민가 형상으로 전체적인 조사와 보전에는 현실적 제약이 따르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확인된 성토층을 보호하고 역사적 가치를 규명할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지점을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송연손 신도비는 조선 중종의 사부였던 송연손(宋演孫, 1460~1508)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551년 건립된 비석이다. 세계유산 무성서원 인근 여산 송씨 묘역에 자리하고 있다. 보존 상태가 양호해 금석문 연구 자료로 활용되며 이수(비석 머리) 뒷면에 새겨진 '방아 찧는 옥토끼' 조각을 통해 당시 묘비 양식의 특징을 보여준다. 건립 연대가 확실하고 예술적 가치가 높아 지역사의 위상과 조선 전기 비석 양식의 변천 과정을 증명하는 자료로 인정받았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관리 대상 우물도 교동마을 우물, 이화담 우물, 내정마을 우물 등 3건도 추가 지정했다. 정읍

시는 지역 명칭의 상징인 우물을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해 2024년 4개소(정해마을 우물, 가정마을 우물, 산외 여우치 빈시암, 산외 외목마을 선녀약수), 2025년 5개소(조소마을 우물, 현암마을 우물, 상흑마을 우물, 표천마을 우물, 봉양마을 우물)를 지정해 총 9곳의 관리 대상 우물을 보존해 왔다.

새롭게 지정된 교동마을 우물은 정(井)자형 석축 구조로 깊이가 깊고 하부는 원형 석축으로 이뤄져 있으며, 고사부리성과 고부항교 등 인근 문화유산과 연계 활용이 가능하다. 이화담 우물은 쌍화차거리 등 관광 자원과 연계 활용 가능성을 인정받았으며 내정마을 우물은 축조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명문이 남아있어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학수 시장은 "향토문화유산과 우물은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굴과 체계적인 관리로 보존해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정읍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시작

맞춤형 신청 지원 확대

정읍시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첫날인 27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현장에 집중하며 본격적인 지급 절차에 돌입했다.

이날 이학수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인구가 많은 수성동과 내장산동 행정복지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신청서 접수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신청서 작성 공간과 대기 동선, 안내 인력 배치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며 실제 접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 요소를 살폈다.

또한 현장을 찾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대기 시간 최소화를 위한 탄력적인 인력 운영을 주문했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고령자와 취약 계층을 위해 전담 안내 인력을 배치

하는 등 시민 중심의 현장 대응을 강조했다.

시는 방문 신청이 어려운 거동 불편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운영에도 적극 나선다. 마을별 수요를 반영한 현장 방문 접수와 맞춤형 안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학수 시장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매우 중요한 민생 정책"이라며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불편 사항을 신속히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며 거동이 불편한 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지원을 적극 확대해 단 한 분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통합돌봄 서비스 박차

추진 현황·발전방안 논의

익산시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의료·요양 통합돌봄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익산시는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협의체 정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체 위원 20여 명이 참석해 통합돌봄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안정적인 사업 정착과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의료·요양 통합돌봄 서비스' 사업을 시범 운영해 올해 3월 말 기준 90여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달 27일부터는 시범 운영 경험

과 체계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사업을 본격 시행해 현재까지 80여 명의 신청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연계하고 있다.

아울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수행기관 6곳을 선정하고,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등도 운영하고 있다.

정현율 익산시장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료와 돌봄의 긴밀한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통합돌봄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시, 재해예방 사업 확보 '총력'

4개소 신규 신청...

상습 침수 완전 해소 집중

익산시가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해예방 사업의 외연을 대폭 확대한다.

익산시는 27일 평화동 일원 '평화·목천포천 재해예방사업' 신규 사업 대상지에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정현율 익산시장 등 전북도와 익산시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점검은 대규모 정비가 필요한 '목

천포천 풍수해 생활권'과 '평화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목천포천 지구는 배수장 증설과 하천 정비로 통해 저지대 침수를 막고, 평화지구는 배수 펌프장을 신설해 상습적인 빗물 역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내년도 신규 재해예방사업으로 △풍수해생활권 △재해위험개선지구 △급경사지 정비 등 총 4개소를 신청하고 중앙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시는 촘촘한 침수 예방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이미 모현동, 마동, 주현동 등 상습 침수 지역 5개소에 우수 저류조

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함라·여산·석탄지구 등 총 8개 지구에 약 2,312여 원 규모의 재해예방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와 익산시는 정치권과 긴밀히 연대해 2027년도 신규 사업이 정부 예산 안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정현율 익산시장은 "전북도와 긴밀히 협력해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재해 예방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기후 위기 속에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재해 위험 요인을 완전히 해소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 철길숲에 비상호출 시스템·AED 설치

긴급 대응력 향상 및 공원 안전망 강화

군산시는 군산철길숲 3개소(1·5·8구간)에 비상호출 긴급시스템과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설치해 시민 안전을 위한 긴급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철길숲 내에서 위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비상벨 작동만으로 119에 자동 신고되며, 신고 위치 정보도 함께 전달돼 신속한 구조와 생활안

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또한 심정지 등 응급 상황 발생 시에는 119 도착 전 자동심장충격기(AED)를 활용할 수 있어 골든타임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군산철길숲 1구간부터 8구간까지 전 구간에는 감시카메라 25대와 공원등 160대, 볼라드등 86대가 설치돼 있어 야간 보행 환경 개선은 물론 범죄 예방과 각종 안전사고 대응 능력도 한층 강화됐다.

또한 시는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철길숲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영조물

배상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시설물 이용 중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안전망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철길숲은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대표 휴식 공간인 만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점검과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 야행' 7만명 몰려... 역대 최다 기록

왕의 정원 첫 공개 및 8야 프로그램 호평

'2026 익산백제 국가유산 야행'이 역대 최다 관람객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익산시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백제왕궁(왕궁리유적)과 금마 일원에서 열린 국가유산 야행에 7만여 명이 방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야행은 '달빛 아래 깨어나는 백제왕궁의 밤'을 주제로, 1,400여 년 전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돼 큰 호응을 얻었다.

너른 백제왕궁 전역을 수놓은 야간 조명은 방문객들에게 봄밤의 낭만적인 정취를 선사했다. 특히 백제왕궁 내 왕의 정원(정원유적)을 최초 공개해 숨겨진 역사 공간을 선보이며 큰 관심을 모았다.



지난 24~26일 개최된 '익산백제 국가유산 야행' 현장

<사진=익산시>

이와 함께 백제왕궁을 무대로 펼쳐진 '8야(夜)' 테마의 체험·공연·전시 프로그램은 방문객들의 고른 참여가 이어지며 완성도를 높였다.

익산시 관계자는 "올해도 역대 최다 관람객이 찾아주셔서 익산백제 국가유

산 야행이 대한민국 대표 야간 문화유산 축제로 자리 잡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익산만의 차별화된 콘텐츠와 안정적인 운영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저메탄 사료 산업화 '청신호'

정읍시가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와 함께 한우의 메탄 발생을 14% 이상 저감하는 사료 소재 'MGOsyn' 개발에 성공하며 탄소 저감 기반 미래 산업 전환의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이번 성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개발된 MGOsyn은 안전성을 인정받은(GRAS) 모노라우린, 마늘, 오레가노를 기반으로 한 천연물 복합체제로, 되새김질을 하는 반추가축의 위(반추위) 내 메탄 생성 경로를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연구진은 최근 4년 동안 100여 종 이상의 미생물, 천연물, 해조류와 화합물 후보 물질을 분석해 핵심 성분을 선별하고 배합을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MGOsyn을 개발했다.

특히 반추위위 모의실험에서 최대 61%의 메탄 저감 효과를 보인 이 연구 성과는 지난해 11월 국제학술지(Frontiers in Microbiology)에 게재됐다. 국가 인증 기관인 국립순천대학교에서 실시한 한우 급여 시험에서도 일

반 사료 대비 평균 14% 이상의 메탄

배출 감소 효과가 확인돼 국가 인증 기준인 10%를 상회했다.

현재 참여 기업인 ㈜정농바이오는 저메탄 사료에 대한 국가 인증 절차를 준비하고 있으며, 인증을 통과하면 국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최초의 저메탄 사료가 될 전망이다. 이번 기술이 상용화되면 연간 약 52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기대되며 향후 농가 실증을 거쳐 본격적인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된 1단계 연구개발의 핵심 결과물인 이번 성과는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탄소 저감 기술의 실용성을 입증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시는 앞으로 지역 농가 실증과 기술 사업화를 바탕으로 연구 성과를 산업 현장에 연결하고, 기업 참여 확대와 기술 이전을 연계해 지역 중심의 연구개발(R&D) 기반 산업화 생태계 구축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 기술의 현장 적용과 산업화를 위해 기업 협력과 기술 이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김제시, 농업인 지원 기반 강화 2(題)

농업인 스마트경영 '성과'

김제시가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농업인 스마트경영 혁신대회'에서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다수 수상이라는 성과를 이어나가며 명실상부한 '스마트농업 선도 도시'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이번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농업인 스마트경영 혁신대회'는 지난 22일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에서 열렸으며 김제는 2년 연속 다수 수상이라는 우수한 성과를 이뤄냈다.

이번 대회는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농업인의 스마트 농업기술과 온라인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제시는 라이브커머스 최우수상(바지런 농장 박미진), 우수상(온도

농장 송현주), 블로그포스팅 우수상(장산농원 양두관), 스마트콘텐츠 우수상(야곱의꿈농장 임정미), 장려상(지애의봄향기 함지애), 단체인 최우수상(회장 박광수) 등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고르게 입상했다.

이는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은 균형 잡힌 디지털 농업 역량을 보여주는 결과로 평가된다.

이승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성과는 농업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열정과 변화에 대한 도전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디지털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교육 지원과 스마트 농업 기반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농작업 안전 컨설팅' 추진

김제시는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찾아가는 농작업 안전 컨설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사전 모집을 통해 선정된 110 농가를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진행되며, 농작업 안전관리자가 직접 농가를 방문해 작업환경과 특성에 맞춤형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농작업장·농로 등 위험요인 점검 △농업기계·농자재 위험요인 점검 △소음·진동·분진·가스 등 작업환경 위험도 측정 △농작업 재해 예방방법 안내 △개인보호구 활용 교육 등이다. 특히 현장에서 즉시 개선 가

능한 부분은 바로 지도하고,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맞춤형 보완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컨설팅에 참여한 한 농업인은 "평소 작업하면서 위험하다고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을 전문가가 짚어줘 큰 도움이 됐다"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안심이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컨설팅을 통해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문화가 현장에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이 안심하고 작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운곡습지 힐링걷기' 솟품 공모

내달 25일까지 접수

고창군이 탐사르 습지도시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방문객들에게 쉽고 여유를 선사하기 위해 '고창 운곡습지 생태길 힐링걷기' 솟품 공모전을 진행 중이다.

이번 공모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운곡습지에서의 하루'를 주제로 열린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운곡습지의 천혜의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걷고, 쉬고, 즐기는 모습을 담은 창의적인 영상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접수 기간은 지난 25일부터 내달 25일까지 한 달간이며, 운곡습지를 사랑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고창 운곡습지에서 걷는 모습을 자유롭게 촬영해 60초

이내의 솟품 영상으로 제작한 뒤, 필수 해시태그(#고창 #봄날의운곡습지 #아무것도하지않아도괜찮아 등)와 함께 개인 SNS에 업로드하고 네이비 폼을 통해 해당 링크를 제출하면 된다.

고창군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오는 6월 10일 고창군 홈페이지를 통해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창군 세계유산과 나윤옥과장은 "탐사르습지와 세계지질공원 등 국제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운곡습지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치유가 되는 공간"이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많은 분이 운곡습지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자신만의 힐링 방식이 담긴 개성 넘치는 영상들을 많이 공유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노인일자리전담기관 현장 방문·애로사항 청취

김제시는 27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시니어클럽 2개소에 대해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운영 실태 점검과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방문에는 이현서 부시장을 비롯해 경로장애인과장,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인 김제시니어클럽과 김제지평선시니어클럽을 차례로 방문해 기관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기관장과의 차담을 통해 사업 운영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노인일자리 공동체사업단 사업장인 파베기카페, 늘푸른두부, 지평선족욕카페, 새참국시 등을 순회하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확인했다.

김제시 노인일자리사업은 2026년 기준 총 320여 원 규모로 추진되고 있으며, 다양한 일자리 제공을 통해 어르신들의 소득 보전과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이현서 부시장은 "노인일자리사업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활력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보다 안정적인 내실 있는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드림스타트 가족 캠프 프로그램 성황

고창군 드림스타트가 지난 25일, 관내 드림스타트 대상 137가구를 함께 상하농원 파머스 클럽장에서 가족 결속력 강화를 위한 '드림 패밀리 함께 Day' 캠프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평소 야외 활동 기회가 부족했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들에게 자연 속에서의 휴식과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족 간의 정서적 교류를 돕고, 아동의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가족들은 고창의 대표적인 농어촌 테마공원인 상하농원을 방문해 다채로운 일정을 소화했다.

먼저 인근 매일유업 공장을 견학하며 매일 마시는 우유의 생산 과정을 직접 확인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으며, 이어 상하농원 체험교실에서는 제철 딸기를 활용한 '딸기잼 만들기' 체험에 참여해 고사리 손으로 직접 수확의 기쁨을 나눴다.

캠프의 하이라이트인 저녁 시간에는 파머스 클럽장에서 온 가족이 함께하는 바비큐 파티가 열렸다. 고창군 드림스타트 관계자는 "이번 캠프 프로그램이 일상에 지친 가족들에게 편안한 심표이자,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힐링의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건강하게 꿈을 키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 동진면, 동진 수미감자 포장·출하작업 일손돕기 추진

부안군 동진면(면장 최정애)은 영농철을 맞아 지역 대표 특산품인 동진 수미감자의 안정적인 유통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손돕기는 지난 24일 진행된 우체국 공영홍소핑 방송을 통해 판매된 동진 수미감자 주문 물량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이뤄졌으며 27일 동진면 직원들이 참여해 포장 및 송장 작업을 지원했다.

단기간에 집중되는 출하 물량으로 농가의 일손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작업 부담을 덜고 원활한 유통에 힘을 보탤 수 있었다.

최정애 동진면장은 "동진 수미감자는 맛과 품질이 우수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부안의 대표 특산품"이라며 "영농철 바쁜 시기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농가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하는 적극행정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김제시, 방위산업 육성 전략 중간보고회 개최

방산 연계 전략 구체화

김제시는 27일 '김제시 첨단 특수목적기반 모빌리티 기술 고도화 및 다각화를 위한 방위산업 육성 전략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방위산업은 컨테이너 기반 모듈형 발사체계와 기동형 군수지원 체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며, 단일 무기체계 중심에서 다양한 플랫폼 기반의 확장형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시는 특장차 및 건설기계 등 지역의 특수목적 모빌리티 산업 기반을 활용해 방위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모색하고, 기술 고도화와 산업 다

각화를 위한 실행 전략 및 단계별 로드맵 마련을 위해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용역 추진 상황과 지역 여건 분석을 바탕으로 △방위산업 및 특수목적 모빌리티 산업 동향 분석 △민군 겸용 기술개발 지원 및 국방규격 인증 지원 △방산 시험·실증단지 구축 및 기반조성 전략 등 실행 중심의 전략 방향이 제시됐다.

시는 중간보고회에서 수립된 의견을 바탕으로 전략을 보완하고, 전문가 자문 및 산학연군 협의체 운영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화 방안을 도출해 최종보고회 시 실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제=온봉기 기자



<사진=부안해경>

부안해경 '2026년 청년인턴' 운영 본격화

주요 정책 현장 지원·홍보

부안해양경찰서(서장 박성덕)는 미래 인재들에게 해양 행정의 다양한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6년 청년인턴 6명을 채용하고 27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발된 청년인턴들은 단순히 사무 보조 업무에 그치지 않고 홍보, 해양 안전, 경비 등 부안해경의 핵심 부서에 골고루 배치돼 6개월간 근무하게 된다.

이들은 각 분야 전문 공무원들과 함께

현장 행정을 지원하며 해양경찰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 승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정책이 안정적인 정착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시각에서 본 맞춤형 홍보 콘텐츠 제작과 현장 캠페인 등에 이들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박성덕 부안해양경찰서장은 "인턴들이 해안경찰의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쌓아 미래의 꿈을 설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고창갯벌 아기 새 교실' 참가 교육기관 모집

고창군이 유아 대상 생태교육 프로그램 '2026 고창갯벌 아기 새 교실'에 참여할 유아교육기관을 모집한다.

'2026 고창갯벌 아기 새 교실'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고창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유아 눈높이에 맞춘 체험형 교육으로 전달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아기 새 교실은 5월부터 10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진행되며, 고창군 관내 유아교육기관 5개소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갯벌의 소리를 활용한 '앗! 갯벌의 소리를 들어보아요' 염생식물을 활용

한 '갯벌 채소 가게 놀이' 등으로 구성된다.

참가 신청은 29일 오전 10시부터 가능하며,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모집 대상은 고창군 관내 유아교육기관 5개소이다.

나윤옥 고창군 세계유산과장은 "아기 새 교실을 시작으로 연령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유산 고창갯벌의 가치를 널리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며 "관내 유아교육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5월 한 달간 관광택시 '반값 할인'

관광객 이동 편의 제고 및 체류형 관광 활성화 도모

부안군은 5월 가정의 달과 여행가는 달을 맞아 관광객의 이동 편의 제고와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택시 요금 50%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할인은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부안을 방문한 관광객이라면 누구나 관광택시를 총 요금의 절반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

다. 코스별 요금은 3시간 코스 7만원→3만 5000원, 5시간 코스 11만원→5만 5000원, 6시간 코스 13만원→6만 5000원으로 대폭 할인돼 합리적인 비용으로 주요 관광지를 편하게 둘러보며 부안 여행을 즐길 수 있다.

특히 오는 5월 2일부터 5일까지 제13회 부안마실축제 개최됨에 따라 할인기간 중 부안을 찾는 관광객은 관광과 축제를 함께 즐길 수 있다.

관광택시를 이용할 경우 축제장 이동은 물론 채식감, 내소사 등 대표 관광지를 연계한 일정 구성이 가능하

다. 부안 관광택시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는 맞춤형 관광 교통수단으로 전문 기사가 일정과 선호에 맞춰 동선을 설계하고 관광지를 안내해 편리하고 만족도 높은 여행이 가능하며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관광택시 할인 이벤트를 통해 부안을 찾는 관광객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여행 만족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고창군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기념제' 성료

군민 참여형 행사 '호응' 동학 정신 계승 가치 확산

고창군이 지난 25일 공음면 무장기포지 일원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제132주년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기념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 녹두대상 시상, 무장포고문 낭독, 동학농민군 진격로 걷기, 동학 비빔밥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되며 1894년 무장기포의 합성과 정신을 생생하게 재현했다.

제19회 녹두대상은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과 계승에 기여한 공로로 문병학 (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

가 수상했으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함께 상금이 수여됐다.

기념식 이후 진행된 '진격로 걷기'에서는 참석자들이 무장기포지에서 구신양초까지 약 5km 구간을 함께 걸으며



고창군이 지난 25일 '제132주년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기념제'를 개최했다.

<사진=고창군>

동학농민군의 발자취를 몸소 체험했다.

또한 26일에는 모바일 걷기 플랫폼 '워크온' 앱을 활용한 '진격로 걷기 챌린지'가 진행돼 전국에서 1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동학농민혁명의 가치 확산과 생활 속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큰 호

응을 얻었다. 정기백 이사장은 "앞으로도 동학의 정신을 계승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기념행사를 통해 그 가치를 널리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정부합동평가 선제 대응

전 지표 점검 및 신규 협업·부진지표 중점 관리

김제시는 27일 이현서 부시장 주재로 '2026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 전략 보고회'를 개최하고, 전 지표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과 실적 제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지표 담당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획감사실 총괄 보고를 시작으로 부서별 지표 추진상황과

향후 대응계획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보고회는 전년도와 달리 일부 부진 지표 중심 하반기 집중 점검에서 벗어나 상반기부터 전체 지표를 대상으로 한 선제적 관리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으며, 앞서 지난 3월에는 부진 지표를 중심으로 국·소·실장 대상 전략회의를 통해 사전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시는 이번 보고회를 시작으로 연중 수시 추진상황 보고회, 부서 워크숍 및

컨설팅, 신규·협업·부진 지표 집중점검, 타 시군 목표 달성 전략 분석 등을 통해 실적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현서 부시장은 "정부합동평가는 국가 주요시책과 도 역점사업의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김제시 행정 역량을 대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전 부서가 책임감을 갖고 지표별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통합반대위 “유의식 완주군수 후보 추대”

“통합 반대 전면전” 출마 공식 요청 “군민 동의 없는 통합 자치권 훼손” 현 군정 의혹 제기 심판론 역설

완주전주 통합반대대책위는 27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6.3 지방선거 완주군수 선거에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을 범군민 후보로 추대한다”고 밝혔다.

통합반대대책위는 “지난 26일 저녁 긴급 집행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며 유의식의 출마를 공식 요청했다.

대책위는 이날 “완주의 미래가 정치적 논란으로 흔들려서는 안된다”며 “군

민 동의 없는 통합 추진은 완주 자치권을 무너뜨리는 폭거이자 군민 뜻을 짓밟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대책위는 최근 지역사회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과 수사 상황을 거론하며 현 군정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대책위는 부동산 관련 의혹, 권한 남용 논란, 이해충돌 우려, 특정 법인과의 관계 의혹, 보은성 수의계약 논란, 공직 선거법 위반 고발과 수사 착수 등을 언급하며 “도덕성과 공정성이 무너진 군정에 완주의 미래를 다시 맡길 수 있는 나라는 군민의 분노와 걱정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책위는 “의혹의 그림자가 드

리온 리더십으로는 군민 통합도, 지역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며 “완주를 또 다시 혼란에 빠뜨릴 선택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이러한 위기를 돌파할 인물로 유의식 의장을 지목했다. 유의식이 지난 2년여 간 완주전주 통합 반대의 최전선에서 군민과 함께 싸워왔고,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지역의 자존과 원칙을 지켜온 인물이라고 평가하며 “유의식 의장이 완주를 지켜달라는 군민의 명령에 응답해 달라”고 촉구했다.

지역 정치에서는 이번 추대 선언이 통합 반대 여론과 현 군정 심판론을 결집시키는 신호탄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Y-FARM EXPO서 ‘우수 홍보관’

정착지원·멘토링 등 집중 홍보 1대1상담 강화 기본소득 관심 커

순창군이 국내 대표 귀농·귀촌 박람회인 ‘Y-FARM EXPO 2026’에서 우수 홍보관상을 수상하며 귀농·귀촌 지원 정책의 우수성과 현장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 박람회는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렸으며, 연합뉴스와 농업이 공동 주최한 가운데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유관 기관이 참여해 귀농·귀촌 유치 전략과 농정 정책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순창군은 박람회 기간 동안 △이사 정착비 지원 △귀농인 소득 기반 지원 △주책 수리 및 신축 지원 △맛집형 멘토링 프로그램 등 정착 전 과정에 걸친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아울러, 단순한 정책 안내에 그치지 않고 방문객 개별 상황에 맞춘 1대1 상담과 현장 중심 설명을 강화해 예비 귀



YFARM EXPO 2026 순창군 홍보관서 현장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순창군>

농·귀촌인의 실질적인 정착 이해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또한 농지 및 주택 매물 정보, 지역 생활 여건, 영농 초기 유의사항 등 구체적인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청년 귀농 성공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현실적인 정착 계획 수립을 지원했다.

특히 순창군이 지난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안정적인 소득 기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

면서 현장 상담 열기도 한층 뜨거웠다.

그 결과 행사 기간 동안 총 162명의 방문객이 순창군 귀농·귀촌 정책에 관심을 보이며 관련 정보를 요청했으며, 이 중 21명은 1대1 맞춤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정착 계획을 논의하는 등 실질적인 유치 성과로 이어졌다.

군 관계자는 “순창이 도시민에게 새로운 기회의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 ‘월광포차’ 춘향제와 함께 운영 재개

20만명 방문 ‘인기’ 체류형 관광 5월 1일부터 6월 13일까지

남원시는 대표 야간관광 콘텐츠인 ‘월광포차’를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3일까지 운영하며, 춘향제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관광객 맞이에 나선다.

올해 월광포차는 춘향제 기간 동안 안 지역가수와 남원시 생활문화동아리 공연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는 ‘행운의 94노래방’을 통해 현장 참여형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어 5월 16일부터 6월 13일까지 매주 토요일에는 초대가수와 함께 더욱 풍성한 무대가 운영된다. 김기태(5.16), 김중서(5.23), 임정희(5.30), 양파(6.6), 테이(6.13) 등 실력과 대중성을 겸비한 아티스트들이 총출동해 월광포차의 밤을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여기에 ‘행운의 94노래방’과 감각적인 디제이 파티가 더해져 단순 관람을 넘어 누구나 주인공이 되는 참여형 야간 콘텐츠로 운영



<사진=남원시>

될 계획이다.

월광포차는 2024년부터 큰 호응을 얻으며 남원의 대표 야간 콘텐츠로 자리매김했다. 그 결과 약 20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으며, 만족도 조사 응답자 중 95.8%가 ‘재방문 의사 있음’으로 높은 만족도를 입증했다.

남원시는 올해 월광포차를 춘향제와 연계해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춘향제를 시작으로 더욱 풍성하고 즐거운 콘텐츠를 제공해 관광객과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남원=김종원 기자

남원시 주생면 폐활주로 유채꽃 명소 ‘재탄생’

남원시 주생면의 옛 활주로 부지가 노란 유채꽃 물결로 뒤덮여 상춘객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다.

남원시는 2020년 LX드론활용센터 공모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의 협의를 통해 1ha 규모의 대체농지를 마련했다. 시는 이 부지를 일시적인 유휴지로 두는 대신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경관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2025년부터 본격적인 유채꽃밭 조성을 추진해 왔다.

폐활주로를 꽃밭으로 바꾼 사례는 충북 제천시의 제천비행장이 대표적이다. 남원시의 유채꽃밭 또한 이러한 유휴부지 재활용 흐름에 발맞춰 과거의 흔적을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은 녹지 중심의 공간재생을 구현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오랜 협의 끝에 마련된 소중한 부지가 시민들의 정성으로 아름다운 꽃밭이 되었다”며 “특히 다가오는 남원시 제96회 춘향제 방문 시기에 맞춰 이곳을 같이 방문하여 봄의 싱그러움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남원=김종원 기자

순창군, 12세 남성 청소년 대상 HPV 예방접종 지원 확대

순창군이 오는 5월 6일부터 12세 남성 청소년(2014년생)을 대상으로 인유두종바이러스(이하 HPV) 백신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기존 여성 청소년 중심으로 시행되던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12세 남성 청소년(2014년생)을 새롭게 포함한 것으로, 자궁경부암, 항문암, 생식기 사마귀 등 HPV 감염으로 인한 관련 질환 예방 효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HPV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감염될 수 있으며, 예방접종은 남성에게 발생할 수 있는 항문암, 생식기 사마귀 등 관련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순창군은 기존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에 더해, 2024년부터 순창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18~26세 여성(1999~2007년생)까지 HPV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보건의료원(보건소) 및 가까운 위탁의료기관(병·의원)을 방문해 무료로 HPV 백신(7다발 4가)을 접종받을 수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지역 균형발전 평가 7년 연속 ‘우수’

지방시대위 전국 지자체 평가 농산어촌 취약지역 개선 우수

완주군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주관한 ‘2026년 지역 균형 발전 사업 시군 구 상위 평가’에서 7년 연속 ‘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차별화된 행정 역량을 과시했다.

이번 평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실시한 것으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 균형 발전 특별회계 지원 포괄 보조 사업에 대한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다.

군은 평가 대상인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과 화산 원산지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 등 2개 분야 모두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도내 최상위 수준의 성과를 기록했다.

특히 이번 성과는 7년 연속 우수 등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단기간의 성과가 아닌 사업 기획부터 집행과 관리까지 이어지는 행정 전반의 체계성과 지속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또한 완주군은 도내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4개 시군 중 하나로 이름을 올리며 높은 정책 경쟁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이종훈 완주군수 권한대행은 “균형 발전사업에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지속적인 우수 성과는 체계적인 사업관리와 부서 간 협업, 그리고 주민 참여가 함께 만들어 낸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균형발전사업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평가 결과는 향후 차년도 예산 편성 인센티브 재원 배분에 반영될 예정이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군, 중앙부처 공략... 2027 예산 확보 ‘속도’

세종청사서 국토·산업부 등 협의 철도망·수도 등 핵심사업 건의

완주군이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잇달아 방문하며 현장 행정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27일 완주군은 이종훈 군수 권한대행, 기획예산실장 등 실무진과 함께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부 관계자들을 차례로 만나 주요 국가예산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이번 방문은 완주군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핵심 사업들을 중앙부처의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고, 내년도 설계비 등 초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의 일환이다.

먼저 국토부 김동환 정책보좌관을 찾아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완주산

단-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총사업비 5,543억 원)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국도 17호선 용진 원상운 교차로 개선(40억 원) △삼례IC 고속도로 진출입로 확장(60억 원) 등을 건의하였으며 해당 사업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부처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서 기후부 관계자를 만나 △수소 상용모빌리티 특화단지 지정 △대용량 수전해 자동화 평가센터 구축(400억 원) 등 민선 9기 글로벌 수소도시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을 집중 건의했다.

산업부를 방문해서는 5월 공모 예정인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사업(1,401억 원)에 대한 완주군 추진 로드맵을 상세히 설명하고 선정 필요성을 적극 피력했다.

이종훈 군수 권한대행은 “역 발전을



<사진=완주군>

위한 국가예산 확보에는 한 치의 소홀함도 있을 수 없다”며 “중앙부처의 핵심 인사들과 긴밀한 소통 채널을 가동하여 건의한 사업들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5월 한 달을 ‘부처단체 집중 대응기간’으로 정하고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전 부서가 전방위적으로 국가예산 확보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바이오·화장품, 축제장에서 알린다

춘향제서 지역 기업 부스운영 지역 'K-뷰티' 경쟁력 제고

남원시는 제96회 춘향제를 맞아 지역 바이오·화장품 산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시민 및 관광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홍보부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부스는 남원시 바이오산업의 주요 성과와 경쟁력을 한눈에 소개하고, 지역 화장품 기업의 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성돼 관람객들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코믹스, 원스킨화장품, 한미화

장품 등 지역 기업이 직접 참여해 체험형 이벤트를 운영하며, 남원에서 생산된 우수 화장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K-뷰티의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동시에 알릴 계획이다.

주요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나만의 작은 지리산 만들기’, ‘피부진단 마크 뷰 테스트’ 등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예천 일원에는 별도의 뷰티존 팝업부스가 조성돼 코믹스, 제너럴뷰티, 원스킨, 한미화장품, 하이직접 체험할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성돼 관람객들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코믹스, 원스킨화장품, 한미화

완주솔테마박물관 ‘사월의 밤’ 전통주·캠핑 접목 체험 성료

완주군 대한민국 솔테마박물관이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사월의 밤, 술을 빚다’ 캠핑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하며 전통주 문화의 매력을 널리 알렸다.

이번 행사는 우리 전통주 문화의 가치를 체험형 교육 내용(콘텐츠)으로 풀어내기 위해 기획했으며 가족 단위 방문객을 중심으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각지의 캠핑 동호회 회원과 가족 등 총 63명, 약 200여명이 참가했다. 특히 캠핑장과 이동식 주택(카리반), 천막(텐트), 차량 숙박(차박) 등 다양한 캠핑 방식을 선보여 참가자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했다.

활동은 ‘놀이·문화·맛’의 3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해 풍성함을 더했다. 참가자들은 전통주를 직접 빚어보며 우리 술의 가치를 배우고 해설사와 함께하는 박물관 관람을 통해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며 오색미감을 느끼는 교육적 가치를 공유했다.

행사 기간 참가자들은 전통주 전문가의 설명을 들으며 누룩 만들기, 발효 과정 이해, 시음 체험 등 활동에 참여했다.

어린이 참가자들은 직접 재료를 만지고 체험하는 과정에서 큰 흥미를 보였으며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기는 따뜻한 소통의 시간이 이어졌다. 야간에는 야외 문화 공연이 펼쳐져 봄밤의 정취를 더했으며 참가자 간 교류의 장으로서 의미를 더했다.

박물관 관계자는 “향후에도 계절별 테마 행사와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문화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유희공간 숙박 모델 ‘월매스테이’ 시동

행안부 공모 선정 3년간 30억 투입 마을·사회적기업 협업 선순환 구축

남원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6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향후 3년간 총 30억 규모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구도심의 유희공간을 활용한 남원형 숙박시설인 ‘월매스테이’를 조성한다. 특히 ‘월매스테이’는 단순한 숙박시설을 넘어 마을 기업과 사회적기업이 공동 운영하는 협업 모델로 구축된다. 이를 통해 은퇴

자, 자립 준비 청년, 취약계층 등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내 자생적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전망이다.

또한 남원시는 ‘월매스테이’를 거점으로 부족한 숙박 인프라를 확충하는 동시에, 지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외지 방문객에게 소개하는 ‘팬슈머(Fansumer)’ 마케팅에 주력할 방침이다.

소비자가 제조 과정에 참여하거나 브랜드 성장을 지원하는 팬슈머 사업을 통해 지역 특산품의 판로를 넓히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복안이다. /남원=김종원 기자

남원시는 이미 지난 2021년부터 수도권 중장년 활동가를 대상으로 ‘사회연대경제기업 공감마켓’을 운영, 상품 구매와 SNS 홍보를 이끌어내며 생활인구 증대에 앞장서 왔다. 시는 이러한 간의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번 혁신모델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남원형 숙박시설을 적극 발굴하고, 구도심 활성화와 생활인구 유입을 유도해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남원=김종원 기자

순창군 ‘농약 줄이고 수확 안정’...청고깃 공급

자체 개발 친환경 미생물 ‘호응’ 이과 생육 안정에도 긍정적인 효과

순창군이 고추 재배 농가의 주요 애로사항인 청고깃(시들음병) 예방과 관리를 돕기 위해 자체 개발한 미생물제 ‘청고깃’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며 농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청고깃’은 버크홀데리야균(Burkholderia territorii)을 기반으로 개발된 농업 유용 미생물로, 토양 내 유해균 증식을 억제하고 유익균 활성을 촉진해 작물 생육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고추 뿌리의 활력을 높

이고 생육 안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업기술센터는 ‘청고깃’을 2리터당 50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는 농가의 경영 부담을 줄이면서도 토양 관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 현장에서 실용적인 자재로 자리매김했다.

순창군은 화학농약 사용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재배 환경 조성을 위해 ‘청고깃’ 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현장 적용 농가들로부터 생육 안정과 토양 환경 개선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장수군보건의료원, 장내기생충 질환 조사사업 추진

장수군보건의료원(원장 노승무)은 장내기생충 감염 조기 발견과 치료 지원을 위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2026년 장내기생충 질환 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감염 취약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총 150명을 대상으로 무료 검사를 실시하며 집중 검체 수가 기간을 별도로 운영해 주민 참여를 높이고 신속한 검사를 추진했다.

장내기생충 중 대표적인 감염충은 자연산 민물고기를 날로 먹거나 오염된 갈·도마 등 조리도구를 통해 감염될 수 있으며, 감염이 지속될 경우 복통, 체중감소, 황달은 물론 담관암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다.

검사 대상자는 민물고기 생식 경험자, 강유역 인근 거주 주민 등 감염 위험군을 우선 선정했으며,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주민에게는 치료제 무료 지원과 복약지도, 치료 후 재검사를 통한 완치 여부 확인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재감염 예방을 위해 △민물고기 익혀 먹기 △조리도구 끓는 물 소독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교육을 병행해 군민들의 예방 인식 제고에도 힘을 쏟았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드림스타트, 가족들과 함께 축구 경기 관람

임실군(심민 군수) 드림스타트는 지난 26일 평소 문화 체험 기회가 부족한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 40명을 대상으로 전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프로축구 경기(전북현대포터스 VS 포항스틸러스) 관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스포츠 관람을 통해 아동의 스트레스 해소 및 가족의 유대감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해 마련됐다. 특히 드림스타트는 온 가족이 경기에 집중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입장권과 함께 통닭 세트를 제공하여 더욱 즐겁게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행사에 참여했던 아동은 "축구장에 직접 온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너무 설레고 직접 와서 경기를 보니 너무 재밌는 거 같다. 이런 기회가 자주 있으면 좋겠다"며 흥분한 얼굴로 얘기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 '산촌활력 특화사업' 추가지원 대상지 선정

진안군은 정전면 학동 산촌생태마을이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년 산촌활력 특화사업' 추가지원 대상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선정은 지난해 신규 지원 대상지로 선정된 데 이어 이뤄낸 성과로, 전년도 전국 8개 신규 지원지 중 4곳만이 추가 지원을 받는 가운데 전북자치도에서는 진안군이 유일하게 포함되며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번 추가 선정에 따라 학동마을은 개소당 2천만 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통해 산촌관광 활성화, 산림자원 활용,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등 전문 컨설팅을 지원받게 된다.

앞서 학동마을은 2025년 사업을 통해 씨없는 귤을 활용한 디저트 개발을 추진했으며 성과를 인정받아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씨없는 귤'의 상품성과 편의성을 살린 브랜드화,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 운영, 위케이션 등 복합 활용 공간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소득 창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진안=전철빈 기자

임실군, FCI 어질리티 대회 첫 개최

'2026 임실N페스타' 세계에전·한국에전연맹 협력 국제성 수준높은 경기 기대

내달 1일부터 3일까지 오수의견관광지에서 열리는 '2026 임실N페스타'에서 국제대회급인 'FCI(세계에전연맹) 어질리티 대회'가 처음으로 개최되면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2일과 3일에 열리는 'FCI(세계에전연맹) 어질리티 대회'는 올해 페스타 축제 중 가장 관심을 끄는 신규 프로그램으로 한국에전연맹(KKF)과 협력해 추진된다.

2일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한 아마추어 대회를 시작으로, 3일에는 인터내셔널 평가전과 대회가 이어지며 전문성과 국제성을 동시에 갖춘 수준높은 경

기가 펼쳐진다. 이 프로그램은 반려견과 보호자가 함께 호흡을 맞춰 장애물을 통과하며 속도 정확성을 겨루는 종목으로 축제에 역동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2026 임실N페스타'는 반려동물 스포츠부터 전문경연 대회, 참여형 체험까지 한층 강화된 핵심 프로그램이 총집결한다.

군은 제41회 의견문화제와 함께하는 이번 축제를 통해 기존 인기 콘텐츠는 물론, 신규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해 '대한민국 대표 반려동물 축제'로서의 위상을 한층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미래 반려산업 인재를 발굴하는 전문 경연도 마련된다. 2일에는 반려누리에서 '한국 반려동물 위그렛 미용대회'가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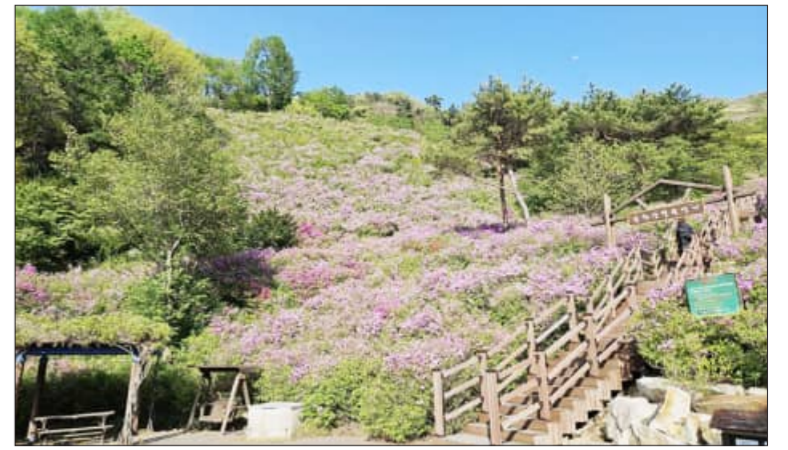
참여형 프로그램으로는 '오수 마스터즈 데이' 역시 눈길을 끈다.

국가대표 어질리티 선수들의 시범훈련을 직접 관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형 미니대회와 팻터켓 교육이 함께 진행된다.

이와 함께 축제의 대표콘텐츠인 '전국 반려동물 패션쇼'는 감성 보컬 그룹 V.O.S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창의적이고 개성 넘치는 런웨이가 펼쳐지며 관람객들의 큰 호응이 예상된다.

국가대표 반려동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크쇼도 3일간 이어진다. '반려동물 토크쇼'를 통해 이용중 교수, 실재현 수의사, 강형욱 훈련사가 차례로 무대에 올라 반려문화, 행동교정, 건강관리 등 실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며 관람객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봉화산 산철쭉군락지 환경 개선

5월 1일 전후 만개 예상

장수군은 전북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봉화산 산철쭉군락지를 찾는 방문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봄철 산행을 즐길 수 있도록 탐방로 정비와 생육환경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오는 5월 1일 전후 산철쭉 만개가 예상됨에 따라 산악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정비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탐방로 안전점검 및 정비 △불법 취사 및 흡연 단속 △산림훼손 행위 계도 △환경정화 활동 강화 △산악안전원 배치 등을 중점 추진해 방문객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쾌적한 탐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아울러 봉화산 산철쭉군락지 전방에 대해 생육 장애 요인 제거 작업을 병행해 철쭉 개화 품질 향상과 군락지 보전을 위한 환경정비에도 힘을 쏟고 있다.

올해 봉화산 산철쭉은 온화한 기후의 영향으로 예년보다 다소 이른 시기에 개화를 시작했으며 다음 달 초까지 화려한 꽃물결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우 부군수는 "장수군 SNS를 통해 산철쭉 개화 현황을 안내할 예정이니 방문 전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장수군, 1인 가구 돌봄 강화

장수군 장수읍지사협, '1촌 맺기 사업' 추진

장수군 장수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박문철·김점옥)는 최근 증가하는 1인 가구의 고독사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촌 맺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회적 고립과 단절로 고독사 위험이 높은 독거노인 및 정·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협의체 위원과 결연을 맺고, 정기적인 안부 확인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특히 지난 13일부터 2주간 협의체 위원들은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생활 실태를 세심히 파악하고 말벗 활동을 진행하는 등 관계 중심의 돌봄을 실천했다.

또한 협의체 위원들은 대상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생활 변화를 살펴



장수군 장수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증가하는 1인 가구의 고독사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촌 맺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장수군>

고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점옥 위원장은 "이번 사업은 건강 이상이나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공공 지원으로 연계함으로써 지역 내 북

지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주민 간 유대감 강화와 공동체 돌봄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무주군, 농작업 대행으로 일손 부담 툰다!

트랙터, 자주형베일러 등 12종 48대 고가 농기계 운용

무주군이 농번기를 맞아 '농작업 대행 서비스' 제공에 주력하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트랙터, 자주형 베일러 등 12종 48대를 활용해 하우스 정지 등 농업 현장의 필수 작업을 대행하고 있다.

농작업 대행 서비스는 농촌 고령화와 부녀화로 인한 일손 부족과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영농철 효자손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다.

농업인 본인이 무주지역 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경작지가 무주에 있다면 농작업 대행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총 338농가를 대상으로 116ha의 농작업을 수행한 바 있다.

황재창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은 "올해도 신청 농가들이 줄을 잇고 있다"라며 "올해 농업기계 구매비를 포함해 3억 4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한 만큼



کم 적기 영농 작업 시행과 경영비 절감과 농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농업기계 효율화로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으로 잔가지 파쇄기, 퇴비살포기 등 영농철 농업기계도 임대한다. 농업기계 임대는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내 본소를 비롯해 무풍·안성본소에서 진행하며, 무풍과

안성본소는 일요일을 제외하고 토요일에도, 무주 본소는 휴일 없이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3곳의 농기계 임대사업장에서는 농업용 굴삭기와 승용 예취기 등 총 79종 517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예약하면 전일 오후 5시에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다.

/무주=최의호 기자

임실군, 양돈농가 '고효율 약취저감제' 공급

총 2억원 예산 투입 관내 양돈농가 37개소에 전담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

임실군이 축산 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여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양돈 약취저감제 공급 사업'을 27일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여름철 기온이 상승하면서 양돈농가 축사 내 분뇨 부패로 인한

악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축산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공급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대한한돈협회 임실군지부의 추천을 받아 임실군에서 일괄적으로 조달 구매 후, 관내 축산 농가에 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급되는 약취저감제는 미생물 제제 및 유용 미생물(EM) 등으로 구성되어

분뇨 내 약취 원인 물질인 암모니아와 황화수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효능이 입증된 제품들이다. 임실군은 올해 총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내 양돈농가 37개소에 저감제 35톤을 순차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임실군은 저감제 공급에만 그치지 않고, 농가를 대상으로 올바른 사용법과 축사 내부 청결 관리 교육을 병행하여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임실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26년 1월 1일 기준 산정 필지

임실군은 지난 24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158,82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심의 의결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30일에 공시하며,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읍·면사무소 및 군청 종합민원실 방문하여 문의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이다.

의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거나, 읍·면사무소 및 군청 종합민원실과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팩스나 우편 등으로 제출이 가능하다.

접수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이의신청이 타당한 경우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과 임실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공시하게 된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군, 아동 정서적 안정·건강한 성장 지원

무주군 드림스타트 아동 대상 1:1 맞춤형 '놀이치료' 진행

무주군은 11월까지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놀이치료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놀이치료는 행동 조절에 어려움을 겪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아동을 조기 발견하고 전문적인 개입을 통해 아동의 자존감 회복 및 사회성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아동에게 친숙한 '놀이'를 통해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대인관계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프로그램은 전문 심리상담 기관과 연계해 주 1회 전문 놀이치료사와 1:1 맞춤형 치료 세션으로 운영되며, 아동 특성에 맞는 모래놀이, 미술 활동, 역할극 등 다양한 교구가 활용될 예정이

다. 강은희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드림스타트팀장은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고 건강하게 표현하면서 마음의 근육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아동의 환경과 건강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발굴·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심리상담 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아동의 개별 심리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추가 상담, 또는 프로그램과의 연계 서비스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주군은 아동복지 안전망 강화 및 지역사회 연계 협력체계 구축 강화에 주력할 방침으로, 올해 드림스타트 아동 맞춤형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무주=최의호 기자

임실군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 운영 회의

치매관리사업 추진상황보고 등

임실군치매안심센터는 지난 23일 치매 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2026년 상반기 지역사회협의체 운영 회의'를 개최했다.

지역사회협의체는 치매관련 전문가 자문 및 유관기관·단체의 협력과 지원을 통한 효율적인 치매관리를 위해 임실경찰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실출장소, 임실군청 노인복지팀,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원봉사센터, 효나눔복지센터 등으로 구성된 협의 기구다.

이번 회의는 2026년도 치매관리사업 행계획을 위한 의견수렴, 2025년 치매 관리사업 추진상황보고 등으로 진행했고, 참석자들은 기관별 자원을 공유해 치매 대상자 발굴 및 지원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다.

보건의료원 김대곤 원장(치매안심센터장)은 "지역사회협의체를 통한 민관 협력 강화로 치매관리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김제 봉남면지사협, 독거노인 생신잔치 열어

김제시 봉남면 행정복지센터는 27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허영희)가 관내 6개 마을을 순회 방문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합동 생신잔치를 열었다고 밝혔다.

올해 추진하는 6개 사업 중 주민들의 효응이 가장 좋은 '독거노인 생신잔치사업'을 첫 사업으로 추진했으며, 이날 남주마을 외 5개 마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협의체 위원 16명은 각 경로당을 순회하며 어르신들에게 케이크, 과일, 차진 등의 간식을 제공하고, 생신을 함께 축하하며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들에게 정서적 위로와 기쁨을 전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이날 참석한 A 할머니는 "이렇게 생일을 챙겨주는 분들이 있어 감사하다"며 소감을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완주군 어르신들, '숲 체험 활동'으로 활력 얻어

완주군 동진노인복지센터가 사단법인 한국 산림복지전문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야수목원과 고산자연휴양림 일원에서 총 4회에 걸쳐 숲 체험 활동인 '숲이 곧 삶, 복지를 디자인하다'를 효응 속에 마무리했다.

이번 숲 체험은 2026년 복권 기금 녹색 자금 사업의 일환으로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와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추진했다.

평소 외부 활동 기회가 적어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기 쉬운 어르신들이 자연 속에서 정서적 안정을 되찾고 건강한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숲 해설가의 안내에 따라 숲길을 거닐며 다양한 생태 자원을 직접 관찰하고 오감을 활용해 자연과 교감하는 과정이 이뤄져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체험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할 수 있어 좋았다"는 등의 소감을 전했다.

/완주=김명근 기자

(주)더팩트에프씨, 익산시에 의류 2,419벌 기탁

지역사회 상생 경영 이어가

익산시는 27일 (주)더팩트에프씨(대표 이천규)가 취약계층을 위해 의류 2,419벌(5,300만 원 상당)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전달된 물품은 계절에 맞는 실용적인 여성복으로 구성됐으며, 저소득 여성가구와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등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천규 대표는 "익산은 가족과 같은 도시로 이웃들이 따뜻한 일

상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웃 한 벌이 누군가에 게는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자신감이 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패션기업으로서 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수년째 변함없는 애정으로 익산 복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더팩트에프씨에 감사드린다"며 "기탁된 물품은 꼭 필요한 대상자와 시설에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완주 '마마줄리아', 어르신 위해 갓 구운 빵 후원

완주군 구이노인복지센터(센터장 안정현)가 지역 사회의 따뜻한 후원을 바탕으로 홀몸 어르신들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센터는 구이 모악산에 위치한 다과점(베이커리 카페) '마마줄리아'로부터 갓 구운 빵을 후원받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 100여 명에게 직접 전달하며 안부를 살폈다.

이번 나눔은 지역 사회 나눔 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마줄리아의 진심 어린 후원으로 이뤄졌다.

제과사(파티세리)가 정성껏 준비한 다양한 종류의 빵과 과자들은 어르신들에게 색다른 미각의 즐거움과 큰 기쁨을 선사했다.

전광석 대표는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사랑을 작게나마 보답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행복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후원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 행보를 지속해서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완주=김명근 기자

(유)닥터체크, 군산시 아동 위해 어린이 영양제 기탁

건강기능식품 전문회사 (유)닥터체크(대표 김성열)가 27일 자사의 어린이 영양제 '스트롱키즈 멀티비타민', '그로유키즈 칼마디K2' 7,000박스(2억2천4백만원 상당)를 군산시에 기탁했다.

이번 기부된 어린이 영양제는 군산시 지역 아동센터 46개소와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유)닥터체크 김성열 대표는 "성장기 아동들이 균형 잡힌 영양을 통해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어린이 영양제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사천시, 3년 연속 상호 기부

2500만원 교차 기부

정읍시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상생 발전을 위해 자매도시인 경상남도 사천시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두 달 동안 상호 기부를 진행했다.

자매결연 27주년을 맞아 두 도시 간 우의를 다지고자 마련된 이번 상호 기부에는 두 지역 공무원 각 250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총 2500만 원을 전달했다.

정읍시와 사천시는 오랜 교류를 통해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2024년부터 3년 동안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사천시와 정읍시 직원들의 고향사랑기부 동참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자매도시 간 교류를 넘어 지역 주민 모두가 함께하는 나눔 문화로 뿌리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사천시는 바다케이볼과 한려해상국립공원이 어우러진 해양관광 도시다. 1999년부터 정읍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문화 교류, 체육대회, 농수산물 판매 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정읍=김정민 기자



정읍시가 자매도시인 경상남도 사천시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두 달 동안 상호 기부를 진행했다 <사진=정읍시>



남원 춘향장학재단, 미래인재 특별 장학금 수여

으뜸인재·남원의 별 장학금

(재)춘향장학재단은 지난 24일,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에 입학한 1명과 예체능 분야에서 탁월한 실적을 거둔 2명에게 '으뜸인재' 특별장학금과 '남원의 별' 특별장학금을 지급하는 수여식을 개최했다.

'으뜸인재' 특별장학금은 으뜸인재 육성사업 참여자 중 우수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2026학년도 수능의 높은 난이도에 불구하고 1명이 메디컬 분야(한의대)에 입학하는 성과를 거두어 1,000만원이 지급됐다.

'남원의 별' 특별장학금은 남원 청소년들의 꿈과 재능을 응원하기 위해 예체능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학생에게 수여하는 장학금으로, 이번에는 체육 분야 2명(검도, 골프)이 선정되어 각각 150만 원에서 40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됐다.

/남원=김종원 기자



부강영농조합법인, 부안군에 상추 180박스 나눔

부강영농조합법인은 지난 24일 부안군에 유럽상추 180박스(총 720kg)를 기탁하며 지역사회 나눔 실천에 앞장섰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탁된 유럽상추는 신선도와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로 부안종합사회복지관, 부안군 노인요양원 등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취약계층에 전달됐다.

부강영농조합법인은 지역 농업 발전과 더불어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사회에 온정

을 나누고 있다. 김택균 대표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성장해 온 만큼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기탁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강영농조합법인은 지역 농산물 생산 및 유통을 선도하며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부안=온봉기 기자

인사

농촌진흥청 인사발령(2026. 4. 27.자)

■ 고위공무원(직위승진)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장 유 동 조

■ 과장급(직위승진) △국립식량과학원 기초식량작물부 작물환경과장 손 지 영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 동물복지과장 성 필 남

■ 과장급(전보) △국립축산과학원 기획조정과장 이 휘 철

맑은 하늘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약속

실내 적정 온도 (20도 이하) 유지 약속해요

불필요한 전기 사용 줄이기 약속해요

가까운 거리 걸거나 대중교통 이용하기 약속해요

미세먼지 공기정화식물 키우기 약속해요

〈一事一言〉



정치의 언어가 동맹을 흔들 때, 그 피해는 국가가 감당한다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지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정치의 언어는 거칠어진다. 비판은 격해지고, 공격은 직설로 치닫는다. 그러나 그 어떤 정치적 경쟁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국가의 외교와 안보, 특히 동맹의 신뢰를 흔들는 발언은 결코 가벼운 정치적 수사로 소비돼서는 안 된다. 최근 장동혁 야당 대표는 대통령을 향해 '진중·반미'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정동영 장관의 북한 핵시설 위치 관련 발언을 문제 삼으며, 한·미 간 정보교류가 차단됐다는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안은 사실관계부터 냉정하게 짚을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한·미 정보공유가 실제로 '차단'됐다는 공식 확인은 없다. 일부 언론에서 제한 가능성이나 조정 정황이 보도된 바는 있지만, 정부는 "정보공유 체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상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확정된 사실이라고보다 해석과 정치적 주장 사

이에 놓인 사안이다. 그럼에도 이를 단정적 사실처럼 규정하고 '진중·반미'라는 프레임과 결합시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다. 이는 정책 비판의 영역을 넘어, 국가의 외교적 신뢰를 직접적으로 흔들는 행위에 가깝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국제 환경은 단순하지 않다. 미·중 경쟁은 구조적 갈등으로 고착됐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 역시 여전히 긴장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외교는 균형과 신중함이 핵심이다. 그러나 '진중' 아니면 '반미'라는 이분법은 현실을 왜곡할 뿐 아니라, 불필요한 갈등을 증폭시킨다. 특히 한·미 동맹은 단순한 외교 관계가 아니다. 군사, 정보, 경제가 결합된 전략적 관계다. 이 동맹은 신뢰 위에서 작동하며, 그 신뢰는 정교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내부 정치의 이해관계에 따라 쉽게 흔들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정치권의 발언은 국내를 넘어 국제사회에도 전달된다. 확인되지 않은 사안을 확대 해석해 동맹 균열처럼 묘사하는 것은

외교적 부담을 자초하는 일이다. 설령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 국가의 협상력과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 야당의 역할은 분명하다.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비판이 국익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흐른다면, 그것은 견제가 아니라 위협이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존재감을 높이려는 시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수단이 외교와 안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정치는 말로 싸운다. 그러나 그 말이 흔들리는 것은 현실이다. 동맹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신뢰는 아주 작은 균열에서부터 무너진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자극적인 구호가 아니라 책임 있는 언어다. 선거는 지나가지만, 외교와 안보는 남는다. 오늘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내일의 국가 신뢰를 소모하는 정치는 결코 이기는 정치가 아니다. 국익은 전쟁의 도구가 아니다. 그 선을 넘는 순간, 정치의 책임은 사라지고 위험만 남는다.

독자투고

진화하는 사이버 범죄, 예방이 최선의 방어다



파스한 봄기운이 완연한 4월이다. 하지만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의 활기 뒤편에는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는 검은 손길이 숨어 있다. 바로 갈수록 교묘해지는 '사이버 범죄'이다. 과거의 사이버 범죄가 단순한 해킹이나 바이러스 유포에 그쳤다면, 오늘날의 범죄는 우리의 심리를 파고든다.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 피싱, 가짜 쇼핑몰을 활용한 중고 거래 사기까지 그 수법은 날로 진화하고 있다. '나는 아니겠지'라는 막연한 자신감이 가장 큰 취약점이 되는 시대다. 모든 범죄가 그러하겠지만 사이버 범죄 역시 피해 복구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미리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사이버 범죄 예방또한 거창한 기술

이 필요한 것이 아닌, 생활 속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첫째,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의 링크(URL)는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교묘하게 위장된 URL 하나가 내 스마트폰의 모든 정보를 복제해 간다. 따라서 '확인'을 누르기 전 3초만 멈추고, 해당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나 콜 센터를 통해 사실 여부를 먼저 파악하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둘째, 동일 비밀번호 사용 지양하고 생체 인증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여러 사이트에서 같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것은 범죄자에게 마스터키를 주는 것과 같다. 따라서 생체 인식(지문, 안면)이나 OTP 인증 같은 다중 보안 설정을 통해 내 계정의 문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불필요한 흔적은 수시로 정리해야 한다. 오랫동안 쓰지 않는 앱이나 사이트 계정에는 의외로 많은 개인정보가 남아 있다. 정기적으로 휴면 계정을 정리하고, SNS에 지나치게 상세한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아야 한다.



사이버 공간은 이제 우리 삶의 일부를 넘어 전부가 되었다. 4월 2일 하루만 묶은 내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보안 상태를 점검해 보자. 철저한 예방만이 소중한 재산과 일상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정읍경찰서 수사과
경장 김현주

사설

국립의원법 통과, '8년 희망고문' 끝내고 실천으로 답하라

남원의 8년 숙원이자 전북 공공의료 체계의 마지막 퍼즐인 '국립의원법'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었다. 2018년 서남대 폐교 이후 의료계의 반대와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장기 표류해온 이 법안이 마침내 통과된 것은 늦었지만 천만다행한 일이다. 이로써 남원에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할 전문 교육기관을 세울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전북 동부권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중대한 전기를 맞이하게 됐다. 돌이켜보면 국립의원법 설립은 지극히 상식적인 과제였다. 폐교된 서남대 의대의 기존 정원(49명)을 활용하는 것이기에 의대 증원을 둘러싼 예민한 논란과도 결이 달랐다. 그럼에도 중앙 정치권은 의료계의 눈치만 보며 8년이라는 긴 시간을 허비했다. 남원시가 이미 210억 원을 들여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기반 시설 조성까지 마친 상태에서, 정부의 결단 부족으로 도민들은 '희망고문'의 긴 터널을 지나야만 했다. 정치적 선행에 관해 도민의 생명권을 담보 잡았던 8년

의 세월은 결코 짧지 않다. 이제 공은 다시 정부와 지자체로 넘어왔다. 법안 통과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정부와 전북자치도는 법안 통과에 안주하지 말고, 남부지대 매입과 설계 등 그간 정체됐던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내야 한다. 특히 국립의원법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남원의료원의 국립 전환 논의를 포함한 구체적인 실질적인 운영 로드맵이 조속히 실행되어야 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이고 의료는 생명지대계(生命之大計)다. 더 이상 정치 논리가 민생의 발목을 잡아서서는 안 된다. 이번 법안 통과가 남원의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대한민국 공공의료 모델의 성공적인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8년의 기다림을 보상하는 마음으로 2030년 개교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해야 할 것이다. 전북 도민들은 이제 '법안 통과'라는 서류상의 성과를 넘어, 남원 땅에 첫 삽을 뜨는 실천의 현장을 엄중히 지켜볼 것이다.



오늘의시

편지 / 송기원

어머니
긴 밤이 끝나고
새벽이 오려 하고 있습니다
쇠장살 너머로
새벽별이 스러지고
이제 막 동이 뜨는 능선마다
달려오는 사람들을 보세요
내일을 살기 위하여
오늘을 죽는 새벽의 사람들을 보세요
이슬에 젖은 발자국 소리가
지금 산아를 울립니다.
어머니

이름 없는 산아와
이름 없는 무덤들 사이에서
아직은 잠들지 마세요
시들은 잠조차 무성한
무덤 너머로 새벽별이 스러지고
이제 막 동이 뜨는
능선마다 달려오는
눈부신 새벽의 사람들을 위하여
아직은 잠들지 마세요
그토록 긴 밤을 떠돌던
많은 낮들과 함께
아직은 잠들지 마세요

시인 약력 : 1947년 전남 보성 출생. 서라벌예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했다. 1974년 단편소설 '경외성서'가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시 '회복기의 노래'가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면서 등단했다. 군부독재 시절 민주화운동에 참여해 4차례 옥고를 치렀다.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00022(영민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www.jeonbuktimes.co.kr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지사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중앙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인후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팔백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전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8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령을 준수합니다

전북의 소식은 전북타임스와 함께

https://www.jeonbuktimes.co.kr 광고문의 282-9601 구독신청 282-9603 기사제보 282-9600



남원 피오리움 1년, 방치된 공간을 지역발전 거점으로 전환

인구감소·유희공간 과제 속 폐자원 재생으로 지방도시의 새로운 가능성 제시

남원시가 35년 가까이 방치된 폐콘도를 복합문화 거점으로 되살린 피오리움이 개관 1년을 맞았다. 피오리움은 단순한 미디어아트 전시관이 아니라, 남원관광지 중심부에 오랫동안 방치돼 있던 공간을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공간으로 바꾼 사례다. 1984년 관광지 지정 이후 노후화가 이어졌고, 경관 저해와 안전, 관광동선 단절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었다. 남원시는 이 공간을 복합문화 거점으로 조성해 오랫동안 폐허처럼 남아 지역의 흉물로 여겨지던 공간을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공간으로 바꿨다. 남원이 마주한 여건은 지방 소도시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문제와 맞물려 있다. 인구감소와 산업구조 약화, 높은 자영업 비중, 노후 주택 증가 등 구조적 한계 속에서 관광지 중심부의 방치 공간은 도시 이미지와 관광 여건, 시민 문화 이용 여건에까지 영향을 미쳐 왔다. 핵심 부지의 동선 단절은 관광권역 확장을 어렵게 했고,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 부족도 지역 과제로 남아 있었다. 남원시는 이 문제를 절거나 단순 정비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던 폐자원을 다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접근했다. 남원시는 재정 문제로 중단된 민간개발 부지를 장기 협상 끝에 매입해 공공화했고, 공모사업을 통해 국도비 92억 원을 확보했다. 폐자원을 문화와 기술이 결합된 공간으로 바꾸는데 중점을 두고, 방치된 공간을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복합문화 거점으로 조성해 단절된 관광 동선을 보완했다. 달빛정원과 피오리움은 기존 폐콘도 구조체를 활용한 재생형 리모델링 방식으로 조성됐으며, 기존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다시 활용해 방치된 시설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전환했다. 연면적 3,741㎡ 규모의 이 사업은 폐자원을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다시 쓰는 방식으로 공간을 바꿨다. 개관 1년 동안 피오리움을 찾은 누적 방문객은 약 13만 명이며, 매표 입장객은 8만 명 수준으로 집계됐다. 누적 회원가입자는 7,800명, 재방문은 7,200명 수준으로 멤버십 활성화율은 92%다. 장기 방치된 폐

자원이 실제 방문 수요 공간으로 바뀌었고, 반복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정량 지표와 함께 현장 변화도 확인된다. 방치 공간이 문화공간으로 바뀌면서 도시 이미지는 달라졌고, 시민은 생활권 가까이에서 문화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갖게 됐다. 관광객에게는 전통관광에 더해 새로운 관광 요소가 더해졌다. 폐자원시설 개선, 시민 안전사고 예방, 문화향유 확대, 지역 홍보효과 등 피오리움이 바뀌는 지역의 변화다. 피오리움은 개별 시설에 머물지 않고 남원 관광의 범위를 넓히는 역할도 하고 있다. 남원관광 RE-PLUS 브랜드의 핵심 거점으로 운영되며, 월광포차, 달달시네마, 그림야행, 별명달명 등 콘텐츠와 시민참여형 프로그램과 연결되고 있다. 전통문화 기반의 기존 남원관광에 체험형 콘텐츠와 야간관광 요소를 더하면서 체류중대 요소를 넓히고 있다. 이 사례는 남원에만 머물지 않는다. 인구감소지역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빈집, 폐자원, 유희시설 문제에 참고할 수 있는 사례이다. 남원시는 피오리움을 유희자원 활용의 대표모델로 보고 있으며, 인근 시군으로 확산 가능한 폐자원 재생 사례로도 판단하고 있다. 지방 소도시의 쇠퇴 문제를 보전 차원에만 두지 않고, 문화와 관광, 공간재생, 지역경제를 함께 보는 방식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남원시 관계자는 “피오리움은 장기간 방치된 공간을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복합문화 거점으로 전환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유희공간과 폐자원을 시민이 일상에서 찾는 문화공간이자 관광의 거점으로 키워, 지방 소도시가 안고 있는 과제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오리움 개관 1년은 방치된 공간도 정책 시민이 함께하면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중앙집중 성장 과정에서 뒤로 밀려난 지방도시가 스스로의 공간과 자산을 다시 활용해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남원의 피오리움은 지방 시대 도시 재생의 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남원=김종원 기자

